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신 동 흔

무속신화 속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맥락과 의미 연구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2019년 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새 미

무속신화 속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맥락과 의미 연구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text and Meaning of unfortunate incident in the shaman myth

: Focused on the <Dorangseonbi and chungjeonggaksi> and <Jijangbonpuri>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새 미

강새미의 문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18년 1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i
국문초록 iv

제1장 서론 1
1.1. 연구목적 1
1.2. 연구사 검토 4
1.3. 연구대상 및 방법 12

제2장 '불행서사'로 본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 18
2.1. 함경도 신화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불행 18
2.2. 제주도 신화 <지장본풀이>와 불행 24

제3장 불행의 서사적 맥락과 대응방식 30
3.1.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청정각시 30
3.1.1 불행의 성격 : 불시에 닥쳐온 극단적 불행 30
3.1.2 대응 및 결과 : 직면과 저항을 통한 출구 찾기 33
3.1.3 청정각시 서사의 특수성과 전형성 43
3.2.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 46
3.2.1 불행의 성격 : 평생을 따라다니는 태생적 불행 46
3.2.2 대응 및 결과 : 좌절과 회피 끝의 인정과 탈피 49
3.2.3 지장아기 서사의 특수성과 전형성 55

제4장 불행의 의례적 체험과 치유 효과.....58
4.1. ‘또 다른 나’의 불행 공유를 통한 위안.....60
4.2. 주인공을 매개로 한 감정적 토로와 표출.....61
4.3. 불행에 얽힌 신적 섭리의 납득과 수용.....66
4.4. 제의적·상징적 죽음을 통한 존재적 거듭남.....73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2
ABSTRACT 86

표 목 차

<표 2-1>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각편 자료 정리.....18
<표 2-2> <지장본풀이>의 각편 자료 정리.....25
<표 2-3> <지장본풀이> 각편별 결말 정리.....27
<표 3-1> <도랑선비 청정각시> 속 청정각시의 고난 정리.....38

국문초록

무속신화 속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맥락과 의미 연구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불행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사건이다. 인간은 왜 불행을 겪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하는가. 이는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집단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집단의 사유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인의 사유구조가 담긴 무속신화를 통해 한국인의 사유구조를 살피고 현재 불행한 상황으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고 불행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무속신화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선정하여 작품에 담긴 불행의 맥락을 살피고 그 의미를 연구하였다. <도랑선비 청정각시> 속 불행을 불시에 찾아온 극단적 불행이라 보고 이에 대한 청정각시의 대응방식을 불행에 직면하고 저항하여 불행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는 방식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청정각시의 불행은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맥락이 같기에 전형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같은 방법으로 <지장본풀이> 속 불행을 태생적 불행이라 보고 이에 대한 지장아기의 대응방식을 좌절과 회피 끝에 자신의 태생적 불행을 인정하여 불행에서 탈피하는 방식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지장아기의 불행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불행과 그 맥락이 같기에 전형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한국 무속신화는 제의 속에서 구술되는 무속신화와 제의가 요청되는 외부적 상황이 특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작용한다. 제의참여자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신이 불려지고, 그 신들의 내력을 풀어내며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신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제의참여자는 신화라는 개별 작품을 기반으로 같은 문제 상황에 놓인 신과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굿이라는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본고는 거듭남의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인식하였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으로 깊은 슬픔에 빠진 참여자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불행을 공유하며 일차적인 위안을 받는다. 이때의 위안은 굿이 진행되는 제의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무속신화 속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서사와 하나가 되어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감정을 토로하고 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을 풀어낸 후에야 제의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불행에 얽힌 신의 섭리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제자인 무당이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다소 받아들기 어려울 수 있는 신의 섭리를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던 예전의 나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남의 과정은 신화 속에서는 주인공의 상징적인 죽음으로, 굿이라는 제의현장에서는 제의적인 죽음으로 나타난다.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특정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융이 말하는 신적인 존재는 인간내면에 숨겨진 신적인 힘을 말한다. 내면 깊숙이 숨어있기에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는 숨겨진 내면을 마주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융이 말하는 종교체험의 과정은 내 안에 숨겨진 신성을 발현하여 존재의 거듭남과 확장을 겪고 나아가 신이 된다는 한국무속신화의 기본 관념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화와 굿을 통한 거듭남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불행으로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불행과 슬픔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신화가 사라진 현대사회에 신화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우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무속신화, 불행. 거듭남, 굿, <도랑선비 청정각시>, <지장본풀이>

제1장 서론

1.1 연구목적

누구나 살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다. 불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일생동안 반복되며 인생을 잠식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등장하여 한순간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불행에 맞닥뜨리면 '왜 하필 이런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라는 의문이 생긴다. 길고 험난한 불행의 시간동안 의문은 반복되고 어떻게든 불행을 감당하려 발버둥 친다. 불행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불행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의 불행이 모두 다르기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 중 하나를 꼽으라면 죽음을 꼽을 수 있다.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은 남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죽음이 급작스러울수록 그렇다. 남겨진 사람은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돌아보고 함께했던 추억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더 많이 사랑했을수록 더 많이 고통스럽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상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오랫동안 칠흑같이 컴컴한 시간 속에 머문다. 죽음과 같은 시간이다. 그러나 평생을 고통 속에 갇혀 죽음의 시간에 머물 수는 없다. 소중했던 이의 죽음에서 비롯한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과 같다.

인간은 왜 불행을 겪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하는가. 이는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삶의 근원에 대하여, 그중에서도 특히 불행에 대하여 그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집단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집단의 사유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유구조를 살피는 작업을 통해 현재 불행한 상황으로 죽음과 같은 시간에 놓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고 불행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위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여 한국인의 사유구조가 담

긴 무속신화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불행은 일상의 균열에서 시작된다. 일상(日常)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한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깨뜨리는 균열은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조금은 지루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을 무너뜨리는 특정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건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건 중에는 행복한 사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삶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살면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된다.

불행 속에서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지금의 불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지금 느끼는 슬픔과 불행은 순간의 감정이기에 이 순간이 지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현재 슬픔과 좌절에 파묻힌 사람에게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행을 만들어낸 감정을 풀어내고, 특정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심리적 죽음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의 과정은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정이다. 개인은 이미 그 불행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불행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거듭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겠지만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이때 타인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 불행을 만들어낸 감정에 공감하는 타인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이 특정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타인이 있을 수 있다. 거듭남의 과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도움이 되는 타인이 필요하다.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거듭남의 과정은 완성되지 않는다.

예로부터 우리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굿을 열어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굿은 타인과 함께하며 개인의 문제 상황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현대사회에 들어 굿을 단순한 미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났지만 굿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 무당이라는 사제자를 매개로

하여 신을 청하여 인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신의 섭리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놓은 개인이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현대사회는 신이 사라지고 의례가 사라진 시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며 신을 청해 모시는 굿은 미신으로 치부한다. 신화는 과학으로 대체되고 절대적 존재인 신이 사라진 자리에 이념과 권력, 돈이 들어앉았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과학, 이념, 권력, 돈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현상 그 너머를 보지 않기에, 현재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망이나 욕망의 대상을 절대시하며 허상을 쫓기에 현대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신이 사라진 시대에 신의 이야기인 신화와 그것이 속한 제의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는 절대적 존재인 신의 섭리 하여 벌어지는 자연의 조화와 여러 삶의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신화가 위치한다. 대부분의 신화와 제의는 유년기에서 성년기, 또 노년기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삶의 마디마디에서 개인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중대한 고비들을 지성과 감정과 행위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는 주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1] 그런데 살면서 맞이하는 중대한 고비는 순차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죽음의 경우 갑작스레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신화는 갑작스레 찾아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서 발생한 슬픔과 불행의 과정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인생에서 불행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모든 신화에는 크건 작건 일정한 불행과 그에 따른 고통이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신화 속에 불행이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불행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신화 속에서 불행과 고통에 직면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우연과 마주친다. 내가 마주한 우연이 행운일 수도, 불행일 수도 있다. 그 모든 우연에 원인을 찾고자 계속해서 이미 벌어진 일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그 우연에 갇히게 된

1) 조셉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1 : 원시 신화』, 까치글방, 2003

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우연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일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삶은 처음부터 끝이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나의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한 판단이 한 시점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리고 한 둘의 특정한 경험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 삶의 행복 또는 불행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2] 그렇다면 경험을 뛰어 넘어, 경험과는 독립해서 전체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선험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 삶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틀이 되는 선험적 관점을 우리는 개인의 세계관, 혹은 개인의 가치관이라 부른다. 신화는 개인이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수많은 신화 중에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신화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이야기하는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이다. 두 신화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은 죽음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신화 속 주인공은 죽음에서 비롯한 슬픔과 불행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두 신화의 내용을 살펴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신화 속에서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불행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의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 살필 것이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무속신화 속 불행과 그 대응방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는 신이 사라진 시대에 신화와 제의가 우리에게 갖는 의의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2 연구사 검토

<지장본풀이>는 지금까지 다른 신화에 비해 서사가 짧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의적 성격을 기반으로 서사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다른

2) 강영안, 「일상의 삶 : 행복과 불행」, 철학논집 제 46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65쪽

본풀이와 비교하여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수자[3], 김헌선[4], 한진오[5] 전주희[6], 고은영[7] 등 소수의 연구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장본풀이>의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수자[8]의 논의는 <지장본풀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논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는 지장아기씨의 일생을 신화적 인물이나 영웅이 가지는 일생의 과정과 성격이 일치한다고 보며 '새'로 환생하는 결말을 신화 속 주인공들의 사후 신성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장본풀이>를 '죽임을 당하는 자와 죽이는 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화'이며,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 속에서 죽이는 자와 죽어가는 대상물 사이의 대립과 조화를 신화적 세계로 허구화시킨 작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지장본풀이>가 민속신앙, 소설, 가사, 서사민요 등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수자의 논의에서 지장아기씨는 죽이는 자, 즉 도살집단을 옹호하는 신이다. 지장아기씨가 백정들의 수호 조상신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이며, 죽어가는 것들은 전새남굿에 의해 저승으로 잘 천도되고 죽이는 자는 새의 몸으로 환생하는 결말을 양편 모두를 보호하는 서사적 장치로 파악했다.

김헌선[9]은 이수자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장본풀이>를 토착적인 요소와 외래적인 신앙요소가 가장 첨예하게 작용하는 사례로 정의했다.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무속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등을 제주도 다른 본풀이 및 서울의 <새남굿>과 비교하여 무속과 불교의 복합 현상을 체계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본풀이임을 밝혔다. 김헌선의 논의에서 지장아기

---

3) 이수자,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미」,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8
4) 김헌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연구 – 특히 『시왕맞이』의 <지장본풀이>를 예증삼아」, 『한국무속학』 제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5) 한진오,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와 연행방식 고찰」, 『탐라문화』 3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새롭게 채록된 자료 있음
6)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vol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연구 : '지장'과 '새'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문속학 제 31집, 한국민속학회, 2015
7) 고은영,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새도림 말명 삽입의 의미」, 탐라문화 vol5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8) 이수자, 위의 논문
9) 김헌선, 위의 논문

씨는 성스러운 모습과 세속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여성신화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새남굿을 하고 새롭게 환생하지만, 동시에 속스러운 여인네의 고난한 삶을 보여주며 서사민요의 여인 일생과 상통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전주희[10]는 <지장본풀이>에 대해 두 가지 연구를 진행했는데, <지장본풀이>를 하나의 신화텍스트로 놓고 텍스트 중심의 연구를 진행한 후에 <지장본풀이>가 구연되는 제의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했다. 텍스트와 제의를 모두 자세히 살펴 지장아기씨의 역할과 본풀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끊임없이 탐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2009년에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면, <지장본풀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장의 속성에 주목한다. 지장아기씨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그녀와 함께 공존한 사람은 모두 죽고 지장을 거부하고 격리시키려고 한 외삼촌댁 식구들과 시누이는 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장아기씨를 살기 위해서는 멀리해야할 뭔가 부정하고 나쁜 것, 다시 말해 일종의 살과 액을 지는 존재라고 말한다. 때문에 <지장본풀이>는 부정한 것의 내력을 풀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모두 불러내어 쫓아낸 후 정화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주술 제의라고 본다. 전주희의 논의에서 지장아기씨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신본풀이의 여주인공들이 지닌 '삶'과 '생명'과 같은 긍정적인 능력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죽게 하는 '살'의 자질을 가진 인물이다. 따라서 <지장본풀이>를 여타 다른 신이 갖춘 자질과 전혀 반대되는 자질을 드러냄으로써 특수성을 획득하는 무속신화로 정의한다.

후속 논문에서는 지장아기씨를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 변한다. 처음부터 <지장본풀이>를 신의 내력을 푼 신화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논문은 <지장본풀이>는 무속신화라기 보다는 단지 부정한 기운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서사무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논문에서는 지장아기씨의 속성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녀가 '살의기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인물들처럼 서사적 결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10) 전주희, 위의 논문

맞은 것이 아니며 ‘제의’를 통해 탄생한 새이기에 모종의 생명력을 획득한다고 말한다. 단지 억울한 죽음으로 원혼을 형상화하는 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됨으로써 제의를 통해 언제든 ‘얻어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장본풀이>에는 제의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부정한 존재의 은밀한 ‘불멸의 욕구’가 담겨져 있으며,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때때로 제물을 얻어먹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11] 그러나 이전 논문에 비해 제의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지장아기씨의 부정한 기운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지장아기씨가 가진 ‘살’의 기운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부정으로 남는다.

한진오[12]는 그간 주된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났던 이용옥본을 중심으로 하여 지장아기씨가 새가 아닌 ‘통부체’, 즉 부처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후 부처로의 환생이라는 화소가 근대적 변이를 거치면서 새풀이의 변신화소를 끌여들여 새를 달래는 후반부를 지니게 된 것이라 말한다. 한진오의 논의에서 지장아기씨는 부정한 존재가 아닌 성스러운 돌부처이며, 돌부처에게 날아들어 해코지 하는 새를 내쫓아내는 것이 <지장본풀이>가 불리는 목적이 된다.

고은영[13]은 <지장본풀이>에 대해 가장 최근에 두 개의 논의를 펼친 학자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 그는 <지장본풀이>와 새ᄃᆞ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는데,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씨와 새ᄃᆞ림의 서수왕딸애기는 서로 다른 개념의 새라는 결론을 내린다. 서수왕딸애기가 만든 새는 강력한 새로 모든 사물에 존재하며 자손들에게 열두 재화를 불러주는 새라면 지장아기씨는 자신으로 인해 죽은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굿을 준비하고 선행을 베풀다 죽은, 제장을 정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두 제차가 시왕맞이에서 불리는 순서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서수왕딸애기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새가 지장아기씨의 새로 정화되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새를 내쫓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각각 독립되어 있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두 제차가 <지장본풀

11) 전주희, 위의 논문
12) 한진오, 위의 논문
13) 고은영, 위의 논문

이> 속에서 만나 뫼비우스의 띠처럼 현실과 신화의 세계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고은영의 논의는 제주도 굿을 서로 유기적으로 얽힌 한 덩어리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두 번째 논의에서는 제주도 굿에 등장하는 전상놀이에 등장하는 '사록'에 주목하여 <삼공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함께 논의하여 사록의 개념을 살폈다.[14] <삼공폰불이>는 복록(福祿)을 누리려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지장본풀이>는 사(邪)를 쫓는데 강조점이 있는데, 복록과 사는 다른 의미를 띠고 있으나 같은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된 개념을 바탕으로 전상놀이에서 사록을 쫓는 행위를 분석했다. 전상놀이에서 막대기로 나쁜 사록을 몰아내는 행위는 웃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웃음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면 그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邪氣)는 멀리 도망가고 복록(福祿)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신에게 고하고 해결되기를 간구한 다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본풀이에 남아있는 고대의 지혜라는 해석을 펼쳤다.

<도랑선비 청정각시>는 함경도 무속에서 불리는 신화이기에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제의 속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주로 신화의 서사분석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그중에서도 청정각시의 고난과정과 죽음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랑선비를 만나기 위한 청정각시의 고난이 깊고 길게 이어지다 결국 자결한다는 결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임석재[15], 전경욱[16] 등에 의해서 함경도의 무속을 소개하는 도중에 짧게 언급되었고, 김헌선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헌선[17]은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함경도 무속서사시를 연구했다. 먼저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주석과 해독의 관점에서 원전을 자세히

14) 고은영, 「사록의 의미-<삼공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9권, 영주어문학회, 2018
15)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묵굿』, 열화당, 1985
16) 전경욱,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17) 김헌선,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 <도랑선배·청정각시노래>를 중심으로」, 구비문학회 Vol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주석하고 각 편을 비교, 차이를 정리했고, 다음으로 후대의 신격이 복합되어 있는 신화적 특징을 가지고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넘나드는 신화적 세계를 구현한다고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신화적 성격을 정리했으며,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비교하여 함경도 무속서사시의 특징을 정리했다.

서영숙[18]은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혼사장애형 민요를 비교하여 각각의 유형구조와 의식을 분석하고 무가와 민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혼사장애형 민요를 '신랑 죽음형'과 '신부 죽음형'으로 나누고 이를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적용하여 화소를 분석했다.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는 엄숙하고 비장한 노래라고 한다면 혼사장애형 민요는 혼인에 얽힌 슬프면서도 흥미있는 노래의 성격을 띤다고 보고, 이러한 차이는 무가가 종교적 노래이고 민요가 일상적 노래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온다고 보았다. 때문에 무가는 주인물의 초인간적인 신적, 영웅적 행위를 그려내고 민요는 주인물의 일상적 경험을 그려내며 그로 인한 시적 갈등과 시름을 표출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조현설[19]은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도 여성을 시험하는 남성과 남성에 의해 야기된 수난을 감내하고 수난을 이겨내는 유능한 여성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해석했다. 청정각시가 몇 번이고 반복되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남성지배가 실현되는 장소로서의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 남성지배의 양식을 신체에 새겨 나가는 과정이고, 신체적 무의식으로 전이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굿판에 참여하는 여성 참례자들의 삶과 상당한 일체감이 존재하기에 그들에게 강한 공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해석했다.

한양하[20]는 <도랑선비 청정각시> 속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청정각시가 겪는 가혹한 시련과 부부의 인연이 죽은 이에게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서사에 드러난 청정각시의 욕망을 살폈다.

---

18) 서영숙, 「서사무가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혼사장애형 민요 비교」, 한국시가문화연구 8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01

19) 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사연구 18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20) 한양하,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30권, 한국구비문학회, 2010

여성에게 혼례는 혼례 전과 후가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다른 세계인데 청정각시는 도랑선비가 죽으면서 중단된 미완의 혼례를 두 번의 시련을 통해 완성해 나가고 이를 완성하면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청정각시에게 부과된 가혹한 시련은 가부장제 편입의 과정이며 그것을 이겨내었기에 열녀로 인정받아 집안의 조상할머니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을 안고자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청정각시가 여성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인물이며 저승에서 그 욕망을 당당하게 실현한다고 보았다.

이은희[21]는 문학치료학의 관점에서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분열과 해체의 위기에 있는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텍스트로 보았다. 청정각시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관계 단절의 위기에 처하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청정각시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노력을 통해 결국 죽은 남편과 재회, 부부서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과오와 잘못을 감싸 안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 인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문학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다.

신동흔[22]은 신화가 본질적으로 공감과 치유를 지향하는 문학양식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분석하여 서사무가 속 울음이 지니는 문학적·제의적 기능을 살폈다. 남편의 잃고서 하염없이 통곡하는 청정각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으로서 그녀가 쏟아내는 울음은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고통과 한을 대리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사별과 같은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속의 청정각시와 정서적으로 일체가 되어 함께 울음을 우는 가운데 가슴속 슬픔을 표출하고 해소하며 이야기의 극점에 청정각시의 죽음은 배치하여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별의 고통을 이겨내고 거듭나기 위한 '제의적 죽음'의 역할을 한다고

21) 이은희,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부부서사의 특성과 문학치료적 가치 – 부부서사의 '지속'을 위한 청정각시의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9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22) 신동흔,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 특히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 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해석했다. 서사무가란 고통의 극한에서 극복의 길을 찾는 역설적인 치유의 미학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흔의 논의는 본고에서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해석하는 관점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김선현[23]은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경계 공간에 주목하여 논의를 펼쳤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서사적 흐름이 이승 공간에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공간, 저승 공간으로 이동하여 전개되는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문과 고개가 현실 속에 죽음이 틈입되는 경계로 설정되어 죽음이 삶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했다. 청정각시의 고난이 '손'에 집중되어 청정각시가 길닦음의 과정을 통해 그녀의 손에 의해 이승과 저승의 길이 열리고, 이승과 저승이 하나의 세계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이승과 저승의 경계 잇기 서사로 파악했다.

정제호[24]는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를 살피고 이를 제의적 차원에서 해석했다. 청정각시의 거듭된 고난과 실패, 그리고 자결을 통한 남편과의 해후는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데 이승과 저승은 닿을 수 없고, 망자와 산자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망묵굿에 모인 사람들에게 망자, 그리고 저승과의 거리를 현시함으로써 다시 볼 수 없는 존재에 대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청정각시의 '길 닦음'을 통해 잠시지만 저승의 망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무당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통해 단절되어 있는 저승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망묵굿에 모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망자와 마주하고, 작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석했다.

윤준섭[25]은 <도랑선비 청정각시>에서 청정각시가 겪는 시련과 죽음의 의미를 희생제의, 열녀담, 연행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논의를 펼쳤다. 청정각시가 겪는 시련과 죽음에는 열의 추구, 남성지배 질서의 강화라는 유

23) 김선현,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경계 공간의 서사적 함의」, 구비문학연구 44권, 한국구비문학회, 2017
24) 정제호,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와 제의적 기능」, 고전과 해석 23권,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7
25) 윤준섭, 「<도랑선비·청정각시>에 나타난 청정각시 죽음의 의미 - 희생제의의 전통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53권, 한국고전문학회, 2018

교적 담론이 담겨있는데, 청정각시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은 '열'이 도덕적 폭력이 되어 청정각시의 신체에 자연스럽게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양식은 희생제의의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청정각시와 조선조 열녀들의 모습을 비교했다. 또한 청정각시의 내면을 굿판의 참가자들과 관련지어 이해했는데, 도랑선비를 만나고 싶은 바람과 도랑선비에 대한 애정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굿판에 모인 참가자들의 마음과 동일하기에 청정각시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와 재회하고픈 기주와 이들의 소망이 투영된 신성한 인물이라 해석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도랑선비 청정각시>, <지장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한 관점아래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두 작품에 드러난 불행의 성격과 그 대응방식을 살피고 이것이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의미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화 속에 담긴 한국인의 사유구조와 융이 말하는 '집단무의식'을 잠시나마 짐작할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무속신화 속 불행과 그 대응방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1.3 연구대상 및 방법

인간에 대한 오랜 궁금증의 중심에는 신화가 있다. 신화란 공동체의 생활에 기반을 둔 신성한 이야기이다. 신화는 그 신화를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것이다. 이 집단을 벗어나면 같은 신화라 하더라도 의의가 달라지거나 신화가 아니게 된다.[26] 이렇듯 신화란 집단의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집단의 사유구조를 담고 있는 설화이다. 신화의 신성성은 위대하거나 숭고한 행위로써 성립된다. 행위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은 신성성은 아무런 신화적 의의도 지니지 않는다.[27] 따라서 신화를 분석함에 있어 신적존재에

26)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주)일조각, 2006, 57쪽

게 일어난 사건과 그에 대한 인물의 행위를 살피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행위는 신성함을 가진, 집단의 가치관과 사유구조가 담긴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 신화에서 인물의 행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화는 무속신화이다. 무속신화는 인물의 존재론적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변화에는 인물의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속신화에서는 비신격에서(세속적 존재) 신격(신성 존재)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비신격에서 신격으로 변신하는 존재들은 어떤 혈통, 어떤 선천적 자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존재론적 자질의 변화, 즉 상위격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통해 과업을 성취해야한다.[28] 정리하면 신화 속 인물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인물의 존재론적 자질변화과정을 분석하는 일이며 이는 곧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유구조 분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신화를 문학작품과 같은 개별적인 텍스트로 인식하여 구조주의적 분석을 시도한 레비스트로스는 하나의 신화에는 그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이 신성시하는 대상의 변별적 특질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신화가 분석 가능한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야기라는 구조를 통해서 사건의 집합으로 된 하나의 절대적 대상인 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화를 분석하는 일은 곧 신을 이해하는 일이 된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가 구송되는 제의에도 주목하는데 제의는 비대칭적이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집단에 유기적인 관계를 부여한다고 말한다.[29] 즉 '신화'라는 하나의 대상은 이야기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text)와 텍스트(text)가 구송되는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부여하는 콘텍스트(context),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무속신화는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 즉 제의 속에서 구술되는 무속신화와 제의가 요청되는 외부적 상황이 특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작용한다.[30] 제의참여자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신이 불려지고, 그

27) 장덕순 외, 위의 책, 56쪽
28) 오세정,「신화의 의미작용과 제의화의 원리」, 신천민속학연구 제 10호, 실천민속학회, 2007, 56쪽
29) C.레비-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주)도서출판 한길사, 안정남 옮김, 91쪽

신들의 내력을 풀어내며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신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무속신화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신이 되는 인물이 행위인데 그 신은 인간과 동일한 문제 상황에 놓여있기에 신화 속 인물의 행위은 곧 인간이 문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이는 무속신화가 신과 인간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융은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현상학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종교는 인간 영혼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표명들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의 정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그는 신학자나 철학자들처럼 신의 존재나 본성, 작용 등에 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신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현상은 어떤 것이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탐구하였다.[31] 여기서 융이 말하는 종교란 기독교, 불교, 유교 등 특정한 교단이나 신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특정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의식의 태도를 의미한다. 융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신봉하는 종교나 종교적 교의와 관계없이 그런 요소들을 체험하고 깊은 충격을 받으며, 그 체험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32]

---

30) 오세정, 위의 논문, 326쪽

31) 김성민, 「심리학과 종교 : C. G. 융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펀 제 38호, 한국실천신학회, 2014, 287쪽.
융은 종교체험이 가능한 이유를 '심리적 실재'와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먼저 심리적 실재한 한 사람이 어떤 것의 물리적 실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그것이 물리적 실재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심리적 실재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은 그에게 실재하기 때문이다. 융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콤플렉스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정감의 복합요소인데, 사람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권력 등 어떤 관념과 관계되는 내용이 하나의 핵을 형성하고, 그와 관계되는 것들이 그 핵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관념과 관계되는 것을 파악하고, 반응하게 하는 정신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콤플렉스는 한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 저렇게 작용하게 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처음 형성될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나 그 관념과 관계되는 내용에 에너지가 많이 담겨 있을 경우 콤플렉스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고조된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 콤플렉스는 살아있는 하나의 실체로서 높은 정도의 자율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융은 종교적 반응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종교현상 역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 따라서 신, 귀신, 구원자 등 원형적 관념을 중심으로 해서 콤플렉스를 만들게 하여 그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성민, 위의 논문, 291쪽 재인용

32) 김성민, 「현대 사회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신학과 실천 제 48호, 한국

그는 ‘신(God);과 ’신의 이미지(Image of God)‘를 구별한다. 신(God)은 절대적인 존재로 인간이 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Image of God)를 바탕으로 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믿는 대상이 절대적인 신(God)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Image of God)라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간이 가진 원형 중 하나인 ‘자기(Self)’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융의 개념에서 ‘자기(Self)’는 인간 정신의 완전한 상태, 자기실현의 상태인 ’개성화‘의 밑바탕이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자기(self)는 인간의 정신요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요소이다. 자기의 투사를 받는 대상은 신뿐만 아니라 신처럼 한 사람을 휘어잡고 뒤흔드는 강력한 것이면 모두 될 수 있으며, 그때 그것은 그에게 신적인 것이 된다.[33] 자기(Self)에 대해 융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이 동적인 요소들은 ‘여러가지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령, 귀령, 제신, 법, 이념, 이상, 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인간이 그의 세계에서 강력하며 위험하거나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경험하여 그들에게 주의 깊은 고려를 하도록 한 것들, 혹은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경건하게 숭배하거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다.”[34]

융이 말하는 자기(Self)는 인간내면에 있는 신적인 힘이고 내면 깊숙이, 집단무의식 속에 숨어있기에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자기(Self)의 인도를 따르면 의식적인 정신요소는 물론 무의식적인 정신 요소들까지 모두 통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자아를 무의식적인 힘에서 구하는 것이며,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35] 자기(Self)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고통이 필수적이다. 상처와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해야만 진정한 자기실현을 이

실천신학회, 2016, 127-128쪽

33) 김성민, 「심리학과 종교 : C. G. 융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펀 제 38호, 한국실천신학회, 2014, 289쪽

34) C.G.Jung,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역,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2008, 19쪽

35) 조정소리, 「융 심리학의 개성화와 기독교 종교체험과의 관련성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신학과 목회상담전공 학위논문(석사), 2003, 31쪽

룰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와 고통은 얕은 수준의 고통이 아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의 고통이다. 융은 자기(Self)의 발견과 이를 통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말한다.[36]

종교체험은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통해 자기(Self)를 발견하고 자기(Self)가 반영된 신적 존재를 접하며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 체험을 통해 체험자는 마음에 새로운 중심을 만들면서 삶을 재구성하여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융은 종교체험에는 정신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적 존재에 대한 체험은 그전까지 다른 콤플렉스에 집중되었던 정신에너지를 새로운 중심에 집중시켜서 정신에너지가 새로운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게 하기 때문이다.[37]

다소 장황하게 설명한 융의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내면에 자기(Self)라는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힘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신의 이미지에 반영된다. 인간은 신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여 신앙 활동을 하지만 자기(Self)란 인간 내면 깊숙이, 집단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 중 하나이기에 인간은 신의 이미지에 담긴 자기(Self)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내면에 있는 자기(Self)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고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자기(Self)를 마주한 후, 자기(Self)가 반영된 신의 이미지, 신적 존재를 접하며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종교체험을 바탕으로 정신치료의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 무속신화는 신적 존재와 제의참여자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하기에 융의 종교체험을 통한 정신치료,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인간들의 원초적 삶에 관한 표상적 기능으로 이해되어온 신화는 그 구조 속에 반드시 고난의 상징적 재현과 극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38] 때문에 신화 속 고난과 불행은 보편적인 것이다. 본고에서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야기 속에서 고난과

---

36) 융은 개성화 과정에 있어서의 대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판단들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의무의 갈등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갈등 상황은 항상 더욱 높은 차원에서의 의무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소리, 위의 논문, 49쪽 재인용

37) 김성민, 위의 논문, 314쪽

38) 김수중, 「고난 극복 신화의 전개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회 36권, 한국언어문학, 119쪽

불행의 극복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각시는 불행에 따른 고난을 겪다가 자결한 후 신으로 좌정하고 지장아기는 사람들에게 흉험을 일으키는 악새가 된다. 다른 신화가 이야기 속에서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말이다. 불행의 과정이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는 데에 비해 결말은 불분명하기에 신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가 굿이라는 제의를 통해 제의참여자에게 주는 치유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신화 텍스트(text)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분석하여 두 신화에 담긴 불행의 성격을 파악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불행의 성격은 곧 제의참여자의 불행과 맥락이 같기에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신화 텍스트(text) 분석을 바탕으로 신화가 제의참여자에게 주는 콘텍스트(context)적 의미를 파악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두 신화는 불행에 관한 신화라 할 수 있을 만큼 불행의 과정이 매우 자세하다. 이처럼 극심한 불행을 다룬 신화가 제의에서 불리는 이유를 콘텍스트(context)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본고의 입장이다.

신화는 제의와 함께 전해지기에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이중으로 얽혀있는 구조를 가진다. 때문에 신화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 다소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콘텍스트와 함께 본다면 입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융이 언급한 종교체험을 통한 개인의 치유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2장 ‘불행서사’로 본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

2.1 함경도 신화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불행

<도랑선비 청정각시>는 함경남도 함흥과 그 인근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무속제의인 ‘망묵굿’에서 불린다. 망묵굿은 ‘망묵이굿’ 또는 ‘새남굿’이라고도 불리는데 함경도 지방에서 가장 성행하는 것으로 망자의 사령이 극락에 가서 안주하기를 기원하는 굿이다.[39] 현재까지 채록된 망묵굿은 총 세 가지인데 구연자에 따라 적게는 열다섯 거리에서 많게는 스물두 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모두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포함되어 있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각 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각편 자료 정리

	각 편명	구연자	조사자	조사지역	수록문헌	조사년도
1	도랑선배 청정각씨 노래	김근성	손진태	함흥	조선신가유편	1926
2	도랑선비	이고분	김태곤	서울	한국무가집 3	1966
3	도랑축원	장채순	임석재	서울	함경도 망묵굿	1981

첫 번째 각 편 <도랑선배 청정각씨 노래>는 『조선신가유편』[40]에 실린 것으로 손진태가 1326년 3월,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채록한 자료로 호시아비 김근성이 구연한 자료이다. 세 각 편 중 이야기가 가장 짜임새 있고 자세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당시 구연자 김근성이 영산제를 지내고 돌아와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41] 굿거리에서 구연하는 방식 그대

39) 이수자, 위의 논문, 43쪽
40) 손진태 저, 동경 향토연구사, 1930년. 본고는 2012년에 출판된 『조선신가유편 : 이북 땅의 무가.1』를 참고하였다.
41) 손진태 편저 ; 김종군외 주해, 『조선신가유편 : 이북 땅의 무가.1』, 박이정, 2012, 55쪽

로가 아닌 줄거리 형식으로 구연한 아쉬움이 있다. 조사자 손진태 또한 대강의 줄거리만을 기록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구하기 쉬운 자료가 아니었기에 기록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번째 각 편 <도랑선비>는 『한국무가집3』[42]에 실린 것으로 김태곤이 1966년 5월, 서울에서 월남한 무녀 이고분에게 채록한 자료이다. 이고분은 23세 때 신이 내린 강신무로서 함흥 지역의 대표적인 무녀로 꼽힌다. 김근성본에 비해 서사단락이 짧고 결말이 불분명하지만 줄거리 형식이 아닌 실제 망묵굿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번째 각 편 <도랑축원>은 『함경도 망묵굿』에 실린 것으로 임석재가 1981년 서울에서 채록한 자료로 글로 정리된 자료는 요약, 정리된 줄거리 형식이며 영상자료를 통해서만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각 편은 도랑선비와 청정각시가 결혼을 하던 날에 갑자기 도랑선비가 죽고 홀로 남은 청정각시가 도랑선비를 다시 만나기 위해 큰 고난을 겪는다는 공통의 줄거리를 갖는다. 세 각 편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신화의 초반 도랑선비의 내력을 소개하는 각 편이 있고 청정각시의 내력이 소개하는 각 편이 있다. 둘째, 청정각시가 겪는 고통의 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셋째, 신화의 결말에서 청정각시가 죽은 도랑선비를 만나기 위해 자결하기도 하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화가 마무리되기도 한다. 3장에서 <도랑선비 청정각시> 서사를 깊이 분석하기 전 각 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선본을 정하고자 한다.

먼저 세 개의 각 편 중 가장 내용이 풍부한 김근성본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정각시의 아버지는 화덕철사이고 어머니는 구토부인이다.
② 각시는 도랑선비라는 어느 양반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됐다.
③ 신랑이 성대한 혼수와 많은 하인을 데리고 신부 집 대문을 넘어서는데 무엇이 뒤통수를 내려집는 느낌을 받았다.
④ 도랑선비가 대례식을 겨우 마치고 큰상을 받았으나 먹지도 않고 가로누워만 있었다.

42) 김태곤, 집문당, 1978

⑤ 청정각시 집안사람들은 도랑선비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이 없자 그를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분해하였다.

⑥ 밤이 되자 도랑선비가 색시를 보게 해 달라 했고 구토부인이 청정각시를 단장시켜 신방에 들여보냈지만 선비는 계속 누워있기만 했다.

⑦ 구토부인은 “아무리 양반의 자신인들, 이런 법이 있을까보냐.”하고 골을 냈다.

⑧ 한참 뒤에 도랑선비가 각시의 손을 잡고 상황을 설명했고, 각시가 놀라 구토부인에게 이를 전했다.

⑨ 부인이 큰무당을 불러 점을 쳐보니 혼수 중에 부정한 삼색채단이 있기 때문이라 하여 혼수를 모두 태워버렸다.

⑩ 그래도 선비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선비는 각시에게 정표를 주며 내일 고개 너머 단발한 놈이 오거든 자신이 죽은 줄 알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⑪ 각시는 첫날밤 폈던 이부자리를 편 채로 정화수를 떠와 신랑의 무사를 빌었다.

⑫ 다음날 하인이 와서 선비의 부고를 전했고 각시는 검은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시가로 가게 됐다.

⑬ 시가로 간 각시는 삼일 동안 물만 사시며 슬피 울었고 곡성이 하늘의 옥황상제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⑭ 옥황상제는 황금산 성인에게 처량한 울음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조사하라고 명했다.

⑮ 성인이 중의 모습을 하고 각시를 찾아가 동냥하자 각시는 동냥은 얼마든지 하겠으니 선비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⑯ 성인은 됫박을 건네며 됫박의 정화수를 길어 선비의 묘 앞에 첫날밤의 이부자리를 펴고 첫날밤 입던 옷을 입고 삼일 간 기도하라고 했다.

⑰ 각시가 삼일 간 기도하자 선비가 나타났는데 각시가 좋아서 손을 잡으려고 하자 “나는 인간과 다르니 어찌 이러오.”하고 사라져버렸다.

⑱ 각시가 성인을 다시 불러 애걸하자 머리를 하나씩 뽑아 노끈을 꼬아서 그 줄에 손바닥을 꾀여 훑어도 아프단 소리를 하지 않아야 선비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⑲ 유혈이 내를 이루어도 각시는 아프다고 하지 않자 다시 선비가 나타났고 각시가 선비를 안고자 할 때 선비는 다시 사라져버렸다.

⑳ 각시가 성인을 다시 불러 애걸하자 기름을 짜서 기름에 손을 적셔 찍어 말려 기름이 없어지거든 열 손가락에 불을 붙여 그 불로 불전에 발원하면 선비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㉑ 각시는 열 손가락이 불타도 아픈 줄 모르고 그 불로 불전에 발원하자 선비가 나타났고 각시가 선비를 안으려고 하자 선비는 또 사라져버렸다.

㉒ 각시가 성인을 다시 불러 애걸하자 도구 없이 안내산 금상절에 가는 길을 닦으면 선비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㉓ 각시가 타고 남은 손가락으로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면서 길을 닦다가 고개 정상에 이르자 오랜 피로로 인해 혼절했고 정신을 차리자 인적 없는 깊은 산 중에 홀로 누워있었다.

㉔ 각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길을 닦다가 고개 밑을 보니 도랑선비가 길을 닦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㉕ 선비가 말하기를, 각시의 정성이 지극하여 이제는 둘이 함께 살 수 있다며 함께 산을 내려갔다.

㉖ 돌아가는 길에 다리를 건널 때 큰바람이 불어 도랑선비를 휘감아 선비를 물속에 넣어버렸다.

㉗ 선비가 자신은 할아버지가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죽인 죄로 이렇게 되었으니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향나무에 명주실을 걸어 목을 매어 죽어야 저승에서 둘이 잘 살수 있다고 했다.

㉘ 각시는 비로소 죽는 법을 깨달아 크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목을 잘라 자결했다.

㉙ 각시가 저승에 가니 도랑선비는 저승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고 둘은 저승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받았다.

㉚ 둘은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신으로 좌정해 망묵굿을 할 때 상을 받게 되었다.

<도랑선비 청정각시> 줄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⑪는 도랑

선비와 청정각시의 혼인과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도랑선비의 득병의 과정이고, ⑫~㉗은 도랑선비의 죽음으로 벌어지는 청정각시의 고난과정이며, ㉘~㉚은 이승에서 이어지지 못한 둘의 인연이 저승에서 이어지는 과정이다. <도랑선비 청정각시> 줄거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시의 고난과정이고 이것이 결국 자결로 이어진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불행'으로 벌어지는 각시의 고난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도랑선비 청정각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각 편 간의 차이점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각 편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이점은 신화 초반 인물의 내력 소개이다. 김근성본은 청정각시의 내력을 소개하는데 비해 이고분, 장채순본은 도랑선비의 내력을 소개한다. 특히 장채순본의 경우 도랑선비 이름의 유래가 나오는데 돌과 같이 단단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에서 '돌'의 음을 따서 '돌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도랑선비의 내력을 소개한 이고분, 장채순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삼촌의 존재이다. 삼촌이 등장하는 경우 도랑선비의 혼인에도 삼촌이 크게 관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혼사에 부정이 생겨 도랑선비가 죽는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고분본에서는 결혼날짜를 잘못 정해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만 외삼촌이 말이 많으면 일을 그르친다며 혼인을 진행하고, 장채순본에서는 장갓길에 여러 가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서 도랑선비가 다른 날을 택해서 장가들겠다고 하는데 삼촌이 그대로 할 것을 우긴다. 김근성본에서 도랑선비가 갑작스레 죽은 이유가 할아버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라며 다소 불분명한데 비해 이고분, 장채순본에서는 도랑선비를 키운 외삼촌, 삼촌의 잘못이라며 분명한 이유를 든다. 특히 이고분본의 경우 신화의 말미에 외삼촌이 혼사에 관여하여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고난을 겪었기에 이후로는 외삼촌이 혼사에 나서지 못한다는 금기를 덧붙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차이점인 청정각시가 겪는 고난의 경우 김근성본에서는 고난이 몇 번이고 중첩되어 제시되지만 이고분본에서는 고난이 과정이 훨씬 짧고, 장채순본에서는 고난의 과정이 조금 다르다. 세 각 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고난은 손바닥에 기름을 적셔 말리기를 반복해서 기름이 다하면 손바닥에 불을 붙이는 고난과 연장 없이 길을 닦는 고난이다. 이고분본에서는 이 두 가지 고난이 전부이고, 장채순본의 경우 공통된 고난 두 가

지에 손바닥에 구멍을 내어 머리카락으로 만든 노끈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고난, 닷새 동안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고난 두 가지가 더해져 김근성본처럼 총 네 가지의 고난이 등장한다. 세 각 편 모두 고난의 형식과 정도는 다르지만 신체적인 고통이 제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신화의 결말부분이다. 김근성본에서는 청정각시가 자결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고분본에서는 죽은 도랑선비를 만날 수 없는 것을 청정각시가 받아들이고, 장채순본에서는 밤이면 도랑선비가 청정각시를 찾아와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청정각시가 도랑선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신직 좌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결을 택하고 저승에 간 김근성본만이 청정각시가 신직에 좌정하는 것으로 나온다. 청정각시의 자결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중요한 해석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자결과 신직좌정이 연결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세 각 편에 대한 설명과 각 편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세 각 편이 조금씩 내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갑작스러운 도랑선비의 죽음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정각시의 반복되는 고난이다. 청정각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슬피 울며 도랑선비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방법을 택한다. 세 각 편은 모두 청정각시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선비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는 청정각시의 삶에 벌어지는 최초의 큰 사건이며 이 사건 이후 각시의 인생은 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도랑선비의 내력을 소개하는 각 편의 경우 도랑선비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삼촌댁으로 가는 시련이 등장하나 이후에는 청정각시의 고난이 주 서사를 이룬다. 따라서 <도랑선비 청정각시>는 청정각시에게 벌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룬 이야기라 할 수 있다.

2.2 제주도 신화 <지장본풀이>와 불행

<지장본풀이>는 제주큰굿의 '시왕맞이'와 '요왕맞이' 제차, 그리고 백정 조상이 있는 집안에서 올리는 굿인 '거무영청굿'에서 불린다. 시왕맞이는 명부의 신 시왕이 오시는 길과 망자의 영혼이 떠나는 길을 닦고 시왕을 맞이하거나 영혼을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굿이다.[43] 요왕맞이는 '용왕맞이'의 제주도 방언으로 바다를 차지한 용왕을 맞아들이고 축원하여 풍어를 빌거나 바다에서 익사한 영혼을 건져내어 저승으로 고이 보내기 위해 부르는 굿이다.[44] 시왕맞이와 요왕맞이는 맞이하는 신은 다르지만 모두 망자의 영혼을 기린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지장본풀이>는 제주도 백정집안에서 자손의 안녕과 가업의 융성을 빌기 위해 올리는 거무영청굿에서도 구송된다. 여기에서는 지장아기가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직업을 가진 집안에서 <지장본풀이>가 구송된다는 것은 신화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도살업은 생명과 삶의 속성과는 거리가 먼, 죽음의 속성을 가진 행위이다.[45] 즉 시왕맞이, 요왕맞이, 거무영청굿 모두 죽음과 관련된 제의이며, 그 제의에서 불리는 <지장본풀이> 또한 죽음에 관한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용준은 제주도 본풀이 등장하는 신을 일반신·당신·조상신으로 나누고 일반신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들의 역할을 정리했다. 현용준의 논의에 따르면 신의 직능이 분명하지 않은 신은 셋이 있는데 <지장본풀이> 속 지장아기, <세민황제본풀이> 속 세민황제, <원천강본풀이> 속 오늘이가 그 셋이다.[46] 그런데 <세민황제본풀이>와 <원천강본풀이>는 현재 굿에서 연행되지 않는 본풀이임에 비해 <지장본풀이>는 현재까지 연행되는 본풀이이다. 굿의 연

---

43)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시왕맞이' 참조 (http://folkency.nfm.go.kr/kr/topic/%EC%8B%9C%EC%99%95%EB%A7%9E%EC%9D%B4/2457)

4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용왕맞이' 참조(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A%A9%EC%99%95%EB%A7%9E%EC%9D%B4&ridx=0&tot=212)

45)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vol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46)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1쪽

행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신의 직능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지장본풀이>의 서사적 맥락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지장본풀이>는 주로 제의의 성격과 연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지장본풀이>는 총 11편이다. 논의에 앞서 각 편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지장본풀이>의 각편 자료 정리

	구연자	조사자	수록문헌	조사년도
1	김만보	현용준	제주도무당굿놀이	1965
2	고대중	장주근	제주도무속과서사무가	1973
3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4	서월선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5	박남하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6	정태진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1997
7	한생소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2001
8	서순실	강정식, 강소전, 송정희	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	2008
9	이용옥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9
10	양창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11	서순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서순실 심방 본풀이	2015

<지장본풀이>의 각 편은 지장아기가 악새로 환생하는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서사전개를 보인다. 따라서 우선 11개의 각 편 중에서 지장아기의 서사가 가장 뚜렷한 안사인본을 선본으로 삼아 줄거리를 정리한 후, 마지막 부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안사인본 <지장본풀이>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산국과 여산국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다 절에 정성을 드린 후에 지장아기를 낳았다.
② 지장아기는 한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무릎에서, 두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무릎에서, 세 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며 자랐다.
③ 네 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여섯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죽었다.
④ 후로 외삼촌댁에 가서 살았는데 개가 먹던 접시에 밥을 먹었다.
⑤ 옥황의 부엉새가 내려와 지장아기를 보살펴 주었다.
⑥ 지장아기 착하단 소문이 나서 열다섯에 서수왕 문수의 댁에 시집갔다.
⑦ 지장아기가 아들을 낳고 착하며 살림도 잘하자 시댁에서 살림을 다 물려주었다.
⑧ 열여섯 되던 해에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가, 열일곱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열여덟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열아홉 되던 해에 남편과 아들까지 죽었다.
⑨ 지장아기가 본인의 팔자를 탓하며 시누이집으로 가니 시누이가 죽일 말, 잡을 말을 하며 구박했다.
⑩ 지장아기가 빨래를 하러 가는데 대사와 소사를 만나 자신의 사주를 봐달라고 했다.
⑪ 대사와 소사는 지장아기에게 초년은 좋은데 말년이 나쁘다며 죽은 이를 위해 굿을 하라고 했다.
⑫ 지장아기가 서천강 들에 뽕나무를 심어서 명주를 만들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된 후에 떡을 만들어 죽은 이를 위해 굿을 했다.
⑬ 살아서 좋은 일을 한 지장아기가 죽어갈 때에 머리에 두통새, 눈에 흘그새, 코로 악심새, 입으로 헤말림, 가슴에 이열새, 오곰에 조작새가 나와 조신(鳥神)이 되었다.

<지장본풀이>의 서사는 지장아기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줄거리 ①~⑨, 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죽은 이를 위해 굿을 준비하는 줄거리 ⑩~⑫, 죽어서 악새가 되는 ⑬으로 나뉜다. 지장아기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줄거

리 ①~⑨를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의 상황이 번갈아 나타난다. 지장아기가 친정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②번 단락과 시댁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⑦번 단락이 연결되고, 친정식구들이 죽는 ③번 단락과 시댁식구들이 죽는 ⑧번 단락이 연결된다. 반복되는 지장아기의 불행은 그녀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우연한 것이 아닌 지장아기의 속성임을 보여준다. ⑫번 단락은 지장아기가 죽은 이를 위해 전새남, 후새남 굿을 분비하는 장면으로 <지장본풀이>에서 가장 길게 구연되는 부분이다.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치고 실을 만드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온 후 다시 쌀을 담아 방아에 찧어서 떡을 만드는 부분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지장본풀이>의 서사가 간략한 것을 고려할 때 굿을 준비하는 장면이 이토록 긴 것은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장본풀이>의 서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반복되는 불행한 상황과 지장아기가 죽은 이들을 위해 올리는 굿이며 그 결과 환생하는 '악새'의 의미이다.

본격적으로 서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장본풀이>에서 지장아기가 악새가 되는 마지막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지장본풀이>의 서사가 간결한 편이기에 각 편마다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유일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지장본풀이> 각편 별 결말 정리

	구연자	결말
1	고대중	지장아기씨 좋은 일 해서 천왕새 몸에, 지왕새 몸에 도환생했다
2	안사인	인간세상에 살며 좋은 일을 한 지장아기씨 죽어갈 때 머리로 두통새, 눈으로 흘그새, 코로 악심새, 입으로 헤말림, 가슴에 이열새, 오곰에 조작새 새 몸에 났다
3	서월선	지장아기가 굿을 마치고 어디로 갈지 푸념하며 끝남
4	박남하	좋은 일을 한 지장아기가 새몸에 나고 천왕새, 지왕새, 인왕새를 쫓으며 끝남
5	정태진	지장아기가 굿을 마치고 은장, 놋장의 거리로 걷는데 지장새 앉아서 지장아기씨를 감쌌다

6	이용옥	인간에서 지장아기씨 좋은 일을 해서 서천 꽃밭에 통부처 몸으로 환생했다
7	양창보	지장아기씨가 저승에 가서 새 몸에 환생, 이 새가 들면 흉험을 주니 쫓자
8	서순실	지장아기씨 좋은 일을 해서 서천 꽃밭에 천앙새 몸으로, 지왕새 몸으로, 인왕새 몸으로, 하늘에는 부엉새, 땅 아래로는 도닥새, 알당에는 노념새, 밭당에는 시념새 몸으로 환생했다

<지장본풀이> 각 편을 살펴보면 신화의 결말이 지장아기가 직접 새로 환생하여 쫓아냄의 대상이 되는 각 편과 새로 환생하지 않고 거리를 헤매거나 통부처로 환생하는 각 편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장아기가 새로 환생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주목할 점은 '새'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우선 '새'라는 명칭은 '邪(사)'에서 유래[47]한 것인데, 이는 사악한 것으로 갖가지 일에 훼방을 놓고 손해를 끼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예사와 다른 분잡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장을 일루왔다(일으켰다)'[48]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같은 표현 또한 부정적인 성격을 띤다. 지장아기가 대사의 말대로 정성스레 죽은 이를 위해 굿을 올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 여러 각 편에서도 지장아기씨가 좋은 일을 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지장아기의 정성과 굿에 부정함이 없었음을, 모든 정성을 다해 굿을 올렸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지장아기는 흉험을 주기 때문에 '훨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내쫓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 지장아기의 살아생전 모습과 죽어서 환생한 '새'의 속성이 정반대이기에 이 간극을 설명하는 것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한 논의를 펼칠 것이다.

47) 현용준은 신령군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서 '새' 또는 '매'라고 부르는 유에 대해 설명했다. 새는 사(邪)인데, 새로 와전 되어 새로 구상화 되어 있고, 매는 본래 마(魔)인 것 같은데, 오늘날 매로 구상화되어 있다. 이것들은 사악한 것으로서 갖가지 일에 훼방을 놓고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악한 성격이라는 점에서는 잡귀류와 같으나, 잡귀류는 인격화 되어 있는 데 배해, 이것들은 인격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두드러진다. (현용준, 앞의 책, 28쪽)

48) 현용준, 앞의 책, 주석 1439인용, 248쪽

지금까지 <지장본풀이>의 각 편을 소개하고 결말 부분에 주목하여 각 편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지장본풀이>는 서사가 매우 짧고 인물간의 갈등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각 편에 따라 편차가 크지 않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된 갈등은 지장아기와 지장아기가 타고난 팔자 사이의 갈등이다. 내면 묘사가 자세한 작품이 아니기에 갈등이 중심이 되지는 않지만 지장아기의 말을 통해 계속해서 지장아기의 심리를 표현한다. 각 편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신화의 결말 지장아기가 새로 환생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직접 새로 환생하여 쫓아냄의 대상이 되지만 서천꽃밭에 통부처로 좌정하거나 정처 없이 길을 걷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장본풀이>는 지장아기에게 벌어진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다룬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제3장 불행의 서사적 맥락과 대응방식

3.1.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청정각시

3.1.1. 불행의 성격 : 불시에 닥쳐온 극단적 불행

청정각시의 불행은 혼인날 도랑선비가 무엇이 뒤통수를 내려집는 느낌을 받고 자리에 가로 누우면서 시작된다.

> 신랑은 성대한 혼수와 많은 하인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신부이 집에 이르렀다. 대문을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신랑은 무엇이 뒤통수를 내려집는 것 같았다. 그는 대례식을 겨우 마치고 큰상을 받았으나, 먹으려하지도 않고, 가로누었다. 대반과 신부집의 일동은 신랑을 거만한자라고 생각하였다, 말을 걸어보았으나, 신랑은 대답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무리 제가 양반의 자식일지라도 저리 무례할 수가 있나.”하고 신부 집의 모두는 속으로 분해하였다.[49]

손꼽아 기다리던 혼인날에 선비는 각시집 대문을 넘다가 무엇이 뒤통수를 내려집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자리에 눕는다. 대반은 혼례과정에서 신랑, 신부 및 그 후행을 안내하고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한다. 신랑의 대반은 대게 신부 오빠나 동생 혹은 신랑과 나이가 비슷한 친척이 맡는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대반과 각시집 일동은 각시의 가족과 친척을 뜻한다. 각시의 식구들이 신랑의 모습을 거만하고 무례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선비가 앓아눕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임을 보여준다. 예상치 못한 선비의 행동을 양반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대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각시의 어머니 또한 같은 모습을 보인다.

신부의 어머니는 딸을 성장시켜 신방에 들여보냈다. 신랑은 그래도 보고 못 본 체 하고 누워있었다. 신부는 돌아앉고 장모는 배알이 나서 신방에서 나가면서 “아무리 양반의 자식인들, 이런 법이 있을까보냐.” 하고 골을 내었으나, 신랑의 대답은 없었다.[50]

---

49) 손진태, 위의 책, 57쪽
50) 손진태, 위의 책, 58쪽

자리에 누운 신랑을 보고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양반이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각시집 식구들과 어머니의 행동은 일종의 자격지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격지심보다는 선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자신의 준비는 완벽했기에, 예상치 못한 불행의 징조에 선비의 탓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불행의 각시와 각시집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선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각시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다.

> 밤중이 되어 신랑은 “내가 타고 온 말을 내어 주시오”하고 청하여, 데리고 왔던 하인들과 함께 집으로 떠나고자 함으로, 신부는 물론 신부가의 일동은 울며불며하였다. 떠나고자 하였을 때, 신랑은 신부에게 향하여 “내일 오시(午時)에 저 너머 불칠고개로 단발한 놈이 넘어오거든 내가 죽을 줄 아시오”하고 정표로 대모 살쩍밀이를 색시에게 주었다.[51]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신혼 첫 날 각시는 선비의 병이라는 불시에 찾아온 극단적 불행과 마주한다. 자신의 신분이 낮아 부러 무례하고 거만하게 구는 것이라 현실을 외면해보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혼과 같이 개인의 일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앞두고 그것이 잘못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믿고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각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앞날에 대한 예측은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앞날에 변수가 생길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결혼과 같이 상대가 있는 경우 변수는 통제를 벗어나 끝도 없이 불어난다. 각시에게 벌어진 불행은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중에서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최악의 경우이다.

만일 선비가 혼인식을 올리기 전에 병을 얻어 혼인하지 못했다면, 얼마간의 결혼생활 후에 병을 얻었다면 각시가 상황을 받아들이기 조금 더 쉬웠을

51) 손진태, 위의 책, 58쪽

지도 모른다. 재가가 쉽지 않은 시절, 혼인을 올리고 첫날밤까지 함께 보낸 상대가 죽었기에 각시의 불행은 더욱 급작스럽고 극단적인 불행이 된다. 각시와 각시집 식구들은 울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길 바라지만 결국 선비의 부고가 전해진다.

> 사자는 정화수를 청하여 그 앞에서 소지를 올리고 두 번 절한 후 부고를 전하였다. 그것을 들은 신부 가에는 일시에 통곡소리가 일어나고 산천초목도 슬픔을 머금은 듯했다.[52]

인용한 원문을 보면 산천초목도 슬픔을 머금은 듯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 모두가 각시의 불행과 슬픔에 동감한다. 각시는 혼인이라는 일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행복을 꿈꾸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 각시를 불행에 빠뜨린다. 그녀는 이제 출가외인이 되어 시댁으로 향하지만 그곳에 선비는 없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로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선본으로 삼은 김근성본의 원문을 살펴본 바와 같이, 청정각시에게 벌어진 불행은 불시에 찾아온 극단적 불행의 모습이다. 혼인을 치루기 전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었으나 선비가 각시집 대문을 넘으며 불시에 불행이 찾아온다. 그리고 손쓸 새도 없이 단숨에 각시의 인생을 집어삼킨다. 각시는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잠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남은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아야한다. 정말 말 그대로 기막힌 상황이다. 이처럼 불시에 찾아오는 극단적 불행의 상황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외상(trauma)'이라 부른다. 외상(trauma)이란 극도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죽음 또는 심각한 상처를 실제로 초래했거나 위협한 사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한 사건'이면서 '극심한 두려움, 무기력, 공포를 초래한 사건'으로 정의된다.[53]

살면서 갑작스러운 불행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보인다.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행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지내기도 하고 계속

---

52) 손진태, 위의 책, 59쪽

53) 이수림,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 19권, 한국심리학회, 2012

해서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찾아 불행을 해결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불행에 대하여 각시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2. 대응 및 결과 : 직면과 저항을 통한 출구 찾기

갑자기 벌어진 극단적 불행을 마주하고 처음 청정각시가 보인 반응은 눈물이었다. 청정각시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낸다. 삼일이 지나 도랑선비의 시체를 매장한 후에도 각시의 울음은 그치지 않는다.

> 신부는 검은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시가로 가게 되었다. 시가로 간 각시는, 삼일동안 오직 물만 마시며 슬피 울고 있었다. 삼일 만에 신랑의 시체는 매장하였다. 각시는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54)]

각시가 몇 날 며칠 슬피 울기만 하자 그 곡성이 하늘의 옥황상제에까지 들어간다. 옥황상제는 슬픈 곡성을 듣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들리는 소리인지 조사해서 올리라는 명을 내리고 황금산성인을 세상에 내려 보낸다. 황금산성인은 중의 모습을 하고 각시를 찾아가는데, 중으로 변한 황금산성인은 선비가 죽은 후 각시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인물이다. 그에게 각시는 죽은 도랑선비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 성인은 중의 모습이 되어, 그 문 앞에서 동냥을 빌었다. 때는 삼구 월 사십 월이었다. 여자는 버선발로 나와 맞으며, 땅에 엎드려 말했다. “동냥이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말로 달라면 말로 줄 테요, 되로 달라면 되로 줄 테니 성인님 아무쪼록 우리 남편 한 번 만나게 해주시오.”

갑자기 찾아온 극단적 불행을 겪으며 몇 날 며칠을 울고 난 후에 각시는 망자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비를 만나고자 마음먹는다. 죽은 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행의 원인이 되는 도랑선비를 만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54) 손진태, 위이 책, 59-60쪽

다. 이는 죽음이라는 불행에 직면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눈앞의 불행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내린 선택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사별과 같은 상상은 현실에 대한 부정을 초래하게 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이러한 상태에 놓은 사람은 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심리적 병리상태가 지속되어 자신의 마음에서 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리적인 슬픔', 즉 건강하지 못한 의존의 형태가 지속되기도 한다.[55] 죽은 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건강한 반응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병리적인 모습에 가깝다. 그러나 각시의 반응에서 주목할 점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붙잡고 죽은 이를 다시 만나서라도 어떻게든 죽음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행에 대한 각시의 반응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저항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의 과정이 각시 앞에 나타난다. 죽은 이를 다시 만날 방법을 알려달라는 각시의 부탁에 황금산성인은 첫 번째 고난을 제시한다. 첫 번째 고난은 선비의 묘 앞에 가서 기도하기이다.

> 그러니 중은 됫박을 내여 낭자에게 주며 "그러면 이것으로 정화수를 길어, 묘 앞에 가서 첫날밤의 이부자리를 거기 펴고 첫날밤 입던 옷을 입고 혼자서 삼일 간 기도하시오."하고 종적을 감추었다.[56]

각시가 겪는 첫 번째 고난은 선비의 묘 앞에서 기도하기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첫날밤의 이부자리를 펴고 첫날밤 입던 옷을 입고'라는 조건이 따른다. 김선헌은 이를 '시간을 혼례일로 회기 시켜 첫날밤이 재현된 삶의 공간으로 전환'이라 해석한[57]바 있다. 첫날밤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은 각시

55) 김희현,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한 가족원의 적응과정」,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위논문(박사), 2016, 5쪽
56) 손진태, 위의 책, 61쪽
57) 김선헌, 위의 논문, 21쪽

의 시간을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각시는 이러한 행동을 성인이 조건을 제시하기 전, 도랑선비가 병에 걸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보인 적 있다.

> 신랑이 떠난 뒤, 신부는 첫날밤에 폈던 이부자리는 편 채로 꾸민 새 방은 꾸며진 채 그대로 두고 정화수를 길어 와서 신랑의 무사를 하느님과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도하였다.[58]

각시에게 선비가 병에 걸려 자신을 떠나던 순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다. 시간이 지났어도 각시는 계속 그 순간에 머문다. 첫날밤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현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각시의 눈앞에 선비가 나타난다.

> 과연 삼일 만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다. 낭자는 너무 좋아서 남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남편은 엄숙한 얼굴로 “나는 인간과 다르니 어찌 이러오.”하고 사러져 버렸다.[59]

각시의 간절함은 선비를 부른다. 그러나 이미 그는 죽은 자이기에,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기에, 간절히 기도하여 선비의 환영을 볼 수는 있어도 그를 만지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다. 그러자 각시는 소리 높여 중을 부르고 선비를 또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한다. 그러자 중의 모습을 한 황금산성인은 각시에게 다음 고난을 제시한다.

> 그런즉, “그러면 너의 머리를 하나씩 뽑아, 삼천 발 삼천 마디가 되게 노끈을 꼬아 안내산 금상절에 가서 그것의 한 끝은 법당에 걸고 또 한 끝은 공중에 걸고 두 손 바닥에 구멍을 뚫어 그 줄에 손바닥을 꾀여 삼천동녀가 힘을 다하여 올리홅어 내리홅어, 아프단 소리를 아니 하여야 만날 수 있으리라.”하고 스님은 말하였다.[60]

---

58) 손진태, 위의 책, 59쪽
59) 손진태, 위의 책, 61쪽
60) 손진태, 위의 책, 61쪽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 고난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첫 번째 고난이 지극한 정성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고난은 신체적 고통이 더해지는 고난이다.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 노끈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훑어야한다. 게다가 아프다는 소리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고난을 각시는 유혈이 내를 이루어도 아프다는 소리 없이 따른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며 고난을 겪자 정말 다시 선비가 나타난다.

> 과연 남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낭자는 아-하고 남편을 안고자 하였을 때, 남편의 모습은 다시 사라졌다. 낭자는 땅에 엎드려 울며 스님을 불렀다.[61]

그러나 이번에도 각시는 선비를 볼 수만 있을 뿐 만지지는 못한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울며 다시 스님을 부른다. 스님의 모습을 한 황금산성인은 다시 등장하여 각시에게 세 번째 고난을 제시한다.

> "네가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싶거든, 참깨 닷 말, 들깨 닷 말, 아주까리 닷 말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에 손을 적셔 찍어 말리고, 말려 찍고 하여 그 기름이 없어지거든 열 손가락에 불을 붙여 그 불로 불전에 발원하면 그렇게 되리라."[62]

힘들게 두 번째 고난을 끝내자 그것보다 더한 세 번째 고난이 제시된다. 기름을 손에 적셔 찍어 말리는 과정도 정성스럽지만 그 기름이 없어지거든 손에 불을 붙여 불전에 발원하는 과정은 단순히 정성스러움으로 완수할 수 없는 과정이다. 정성뿐만 아니라 손이 불타는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다. 하지만 각시는 또 다시 군말 없이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 열 손가락이 피이피이하고 불타도 아픈 줄도 모르고 정성스레 불전에 발원한다. 그 불이 어찌나 큰지 염라왕이 불이 난 줄 알고 불을 끄기 위해 도랑선비를 보낼 정도이다.

---

61) 손진태, 위의 책, 62쪽
62) 손진태, 위의 책, 62쪽

그때, 염라왕은 금상절에 불이 난 줄 알았다. 그래서 도랑선비에게 명하여 그것을 끄고 오라 하였다. 거기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도랑선비가 부처님 뒤에 나타났을 때, 낭자는 또 남편을 안고자 하였음으로 남편 모습은 다시 사라져버렸다.[63]

각시의 정성이 극진하여 손에 붙인 불이 크게 났고 때문에 염라왕이 도랑선비를 금상절로 보낸다. 앞서 선비가 등장했을 때와 달리 각시의 정성이 저승에까지 전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또 다시 선비의 모습을 보는 것만 허락될 뿐 손을 잡거나 만지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각시는 또 다시 스님을 불러 애걸한다. 황금산성인이 내린 네 번째 고난은 안내산 금상절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그러면 안내산 금상절에 가는 고갯길을 장비를 아니가지고 이쪽까지 길을 닦으면 만날 수 있으리라." 낭자는 타고 남은 손가락으로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면서 길을 닦기 시작했다.[64]

각시는 노끈이 훑어내려 구멍이 나 유혈이 낭자하고 불에 타 새까맣게 변한 손가락으로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른다. 성한 손으로도 고된 일을 엉망이 된 손으로 한다. 각시가 온갖 고난을 겪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죽은 선비를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다.

각시에게 이처럼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고난이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시가 겪는 신체적 고통은 비현실적인 고통이다.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손바닥에 구멍이 나고 불타는 일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현실적인 고통이 각시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를 살펴보기 전 각시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고난이 벌어지는 공간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3) 손진태, 위의 책, 62쪽
64) 손진태, 위의 책, 62쪽

<표 3-1> <도랑선비 청정각시> 속 청정각시의 고난 정리

	고난	결과	공간
(1)	뒷박에 정화수를 길어 묘 앞에 가서 첫날밤의 이부자리를 펴고 첫날밤 입던 옷을 입고 혼자서 삼일 간 기도하기	선비의 모습이 나타남. 각시가 선비의 손을 잡으려 하자 사라짐	묘
(2)	머리를 뽑아 노끈을 만들고 손바닥에 구멍을 꿇어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프단 소리를 하지 않기	선비의 모습이 나타남. 각시가 선비를 안으려 하자 사라짐.	금상절
(3)	손에 기름을 찍어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 뒤 열 손가락에 불을 붙여 그 불로 불전에 발원하기	선비의 모습이 나타남. 각시가 선비를 안으려 하자 사라짐.	금상절
(4)	장비없이 안내산 금상절에 가는 고갯길을 닦기	선비의 모습이 나타남.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건넘	깊은 산 중

각시에게 네 번의 고난을 제시하는 황금산성인은 선비가 죽은 후 각시 앞에 나타나는 유일한 인물이다. 신화의 초반 선비와 각시의 가족, 하인 등 여러 인물이 나타나는데 고난의 과정이 시작되면서 현실적인 인물은 모두 사라진다. 각시의 고난을 지켜보는 이들은 모두 옥황상제, 염라대왕, 성인 등 초월적인 인물이며 그들이 제시하는 고난 또한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비현실적인 고통이 따르는 고난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본고는 이것이 실제로 각시가 겪는 일이 아니라 각시의 심리적인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한다. 죽음이라는 사건에 직면하고 저항하여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에 따르는 심리적인 고통의 표상인 것이다.

첫 번째 고난에서 첫날밤 입던 옷을 입고 첫날밤 이부자리를 펴고 간절히 기도하여 시간을 되돌려 고통의 순간에 머무는 것으로 선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각시에게 엄청난 신체적 고통이 따른다. 각시의 고통이

심해지며 공간 또한 묘에서 금상절로, 더욱 고립된 곳으로 이동한다. 신체적 고통은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유혈이 내를 이루고 열손가락이 불타는 엄청난 고통이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각시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선비를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당대 유교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열이 청정각시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결과라 해석하며 신화가 각시의 고통에 무감각하다 해석한 바 있다[65] 그러나 신화가 각시의 고통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시의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우리는 흔히 매우 슬프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신체적 아픔에 비유하곤 한다. 슬픔이 차고 넘쳐서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을 가진 '단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각시가 아프다 말하지 않는다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유혈이 낭자하고 불타는 심적 고통을 손에 구멍이 나고 불타는 신체적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심적 고통을 왜 '손'이라는 신체기관에 비유했는지 그 맥락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체기관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솜씨, 방법, 도움이 될 힘이나 행위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고난을 헤쳐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각시의 손이 구멍 나고 불타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심적 고통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극심한 고통에도 각시는 선비를 만나지 못한다. 각시는 산 자이고 선비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각시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으로 상징되는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황금산 성인이 제시한 네 번째 고난인 안내산 금상절로 가는 고갯길을 닦는다. 금상절로 가는 고갯길은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에서 각시가 선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신체적 접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낭자는 타고 남은 손가락으로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면서 길을 닦기 시작했다. 고개 정상에 이르렀을 때, 낭자는 오랫동안의 피로로 인하여 거기에서 혼절하여 버렸다. 한참 지나 겨우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낭자는 비로소

65) 윤준섭. 위의 논문 241쪽

자기의 주위를 보고 놀랐다. 인적 없는 깊은 산 중에 홀로 누워있었다. 66)

각시가 혼절 후 깨어나는 장면에서 혼례식 이후 처음으로 공간묘사가 나타나는데 그곳은 '인적 없는 깊은 산 중'이다. 망자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 끝에 망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인적이 없고 고립된 산 중으로 묘사된 장소는 이승과 저승사이 그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무의식의 공간이다. 각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도랑선비와 손을 마주잡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선비와의 교류가 혼절 후 깊은 산중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금상절로 가는 고갯길을 닦는 것이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며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서 잠시나마 이승과 저승 그 중간지점에 머물게 됐음을 알려준다.

온갖 고생 끝에 만난 선비는 지금부터는 둘이 함께 살 수 있다며 각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태한 다리를 건널 때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 큰 바람이 불어 도랑선비가 다리 아래 물속으로 빠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도랑선비는 물속에서 아주 큰 소리로 둘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바로 각시의 자결이다.

> "나와 같이 살려거든 집에 돌아가서 석자 세치 명주실로 오대조가 심은 노가지 향나무에 한 끝을 걸고 한 끝은 네 목에 걸고 죽어라. 죽어 저승에서라야 우리 둘이 잘 살리라." (중략) 낭자는 비로소 죽는 법을 깨달아 크게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르친 대로 목을 잘라 자결하였다.

각시의 자결은 <도랑선비 청정각시>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며 신화가 열녀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중심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각시는 그저 자신의 삶에 갑자기 등장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선비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죽어야 하는지, 정말 선비의 말 한 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든다. 각시의 죽음은 신화의 상징적 죽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비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각시의 심리적인

66) 손진태, 위의 책, 63쪽

죽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각시가 선비가 자신을 떠난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에,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며 이승과 저승 그 사이, 무의식이 공간으로 이동했기에 가능한 죽음이다. 이 죽음을 통해 각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세상은 다른 것임을, 그토록 바랐던 선비와의 재회는 죽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김근성본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 편에서는 각시의 자결이 등장하지 않는다. 각시가 첫날밤 이부자리를 펴고 첫날밤 옷을 입고 기도하지도 않고 금상절까지 가는 길을 닦다가 혼절하는 일도 없다. 오히려 죽은 선비가 저승과 이승을 오가고 각시가 선비는 죽은 자이기에 다시 만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려진다.

> 청천각씨는 도랑선비를 보자구 지금 이 도를 닦아 가주구 들읍니다
> 그래 붙뜰구 하소연 하니
> 야 안주근 멀었다/ 너두 이 시상(世上)에 나서
> 선간으루 승천하겠으니
> 죽어 만나지 살아지비 못 만난다
> 살어 못 만난다고 하니 그때여 도랑선비는 말을 서너 마디 하구 갔어
> 가실 적이요 이것두 도를 닦아서 도랑선비를 만났구나 하구서[67]

> 도랑선비는 같이 가자며 청청각시를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어느 큰 강 위에 놓은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다리의 중간 쯤에서 도랑선비는 강물 속으로 빠졌다. 그런데 밤이면 도랑선비는 청청각시에게로 찾아와 부부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68]

<도랑선비 청정각시> 세 각 편 모두 이승에서의 인연이 저승에서도 이어지며 죽은 자와 산 자가 엄연히 다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김근성본에서 유독 고난의 과정이 길고 자결이라는 극적인 화소가 나타나는 것은 김근성본 속 청정각시가 이고분, 장채순본 속 청정각시에 비해서 슬픔과 고난의 과정을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더 깊은 슬픔에 빠져 심리적 죽음을 겪었기에 각시는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신화

67) 김태곤, 위의 책, 79쪽
68) 임석재, 위의 책, 83쪽

속에서 각시가 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김근성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여기에서 청정각시에게 불어진 불행의 원인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랑선비 청정각시>는 사랑하는 청정각시가 길고 긴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 도랑선비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이유는 각시가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야 설명된다. 그 이유는 각시의 죄도 아니고 남편 선비의 죄도 아니고 도랑선비 가족에 의한 잘못, 일종의 '업'으로 설명된다.

>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죽인 죄로 이렇게 되었소.[69]

> 외삼촌이는 혼사에 나서서
> 아들이나 딸이나 외삼촌이나는 외아지비 나서서 혼사에 비치지 못합니다.
> 이것이 비치면 둘이 영영이 사는 길이 없읍니다.[70]

> 마침 장가길을 떠나려는데 여러가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다. 도랑선비는 다른 날을 택해서 장가들겠다고 하는데 삼촌은 그대로 할 것을 우겨서, 장가길을 떠났다.[71]

김근성본에서는 불행의 원인을 도랑선비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이고분, 장채순본에서는 도랑선비 외삼촌의 잘못으로 설명하고 있다. 삶을 뒤흔들어 놓은 불행이 갑작스레 일어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원인이 내 잘못도 아니고 나를 만나기 이전, 심지어 상대방 조상의 잘못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는 청정각시가 겪는 고난과 불행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우리는 살아가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을 수없이 겪는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등은 모두 우연히 벌어져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이다. 청정각시의 불행 또한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불행과 같은 것이다.

청정각시에게 벌어진 불행은 불시에 닥쳐온 극단적 불행이다.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불행이기에 청정각시는 불행에 직면하고 저항하여 출구를 찾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도랑선비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69) 손진태, 위의 책 64쪽
70) 김태곤, 위의 책 79쪽
71) 임석재, 위의 책 81쪽

못했던 자신의 심리적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머리가 뽑히고 손에 구멍이 나고 불타는 신체적 고통으로 대변되는 심리적 고통을 겪었기에 청정각시는 신으로 좌정한다. 그리고 이는 어떻게든 불행에서 벗어나보려 행동하고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3.1.3. 청정각시 서사의 특수성과 전형성

청정각시의 서사는 불행이 불시에, 극단적으로 찾아온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지만 또 이것이 살면서 만나는 불행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전형성을 가진다. 청정각시가 겪는 불행의 주원인이 되는 죽음의 경우 인간은 모두 죽기에 모두가 겪는 전형적인 불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모든 죽음이 아주 천천히, 상대가 죽을 것이라는 예견된 슬픔을 충분히 겪은 후에 찾아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삶의 곳곳에 숨어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사건사고들을 겪게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일 뿐이다.

갑작스러운 사별은 개인의 삶의 전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갑작스러운 사별경험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잘 해결되지 못한 사별슬픔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죽음이 예측될 수 없을 때 예견된 슬픔을 거치지 못하게 되어 사별 후 초기 슬픔의 강도가 심한 특징이 있다.[72] 사별은 상실과 연관된다. 상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이기도 한데 이는 인간 실존에서의 불안을 유발하는 삶의 위기의 중심에 상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험적 차원에서 결핍이나 자신의 정체감의 손상, 고통의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이런 상실로 인하여 인간은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73]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청정각시의 슬픔의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갑작스러운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경험은 우선 남은 사람에게

72) 김희현, 위의 논문, 1쪽
73) 김희현, 위의 논문, 4쪽

큰 상실의 충격을 준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보받는 순간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순간이며 유선 상으로 전해들은 부고는 쇠망치나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느낌이나 전기충격을 받은 느낌이라고 설명한다.

> 근데 그게 그게요 막상 일이 닥치고 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자제할 수가 없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엄청나게 쎄게 한 방 맞은 느낌인데요..[74]

때문에 부고를 전해들은 그 순간부터 남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시간은 그 시점에서 멈춘다. 그리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 옆에 사람들이 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귀에 막혀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순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사고소식이 흘러나오던 그 이후의 시간은 멈추어있어요. 내 머릿속에는[75]

> 슬픔이 의식적으로 조절이 안돼요, 내가 안 울어야지... 그만 울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안돼요 그게...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조절하기 힘든 감정이 슬픔이라는 감정인가 봐요(중략)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그 날은 계속 울어요. 혼자서 계속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잘 때까지 베개를 적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76]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부고를 접하는 그 순간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며 그 이후로 시간이 멈춘다고 한다. 선비의 부고를 듣고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고 첫날밤 입었던 옷과 이부자리를 펴고 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청정각시의 모습과 같다.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따른다.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현실이 못 견디게 괴

74) 김희현, 위의 논문, 23쪽
75) 김희현, 위의 논문, 25쪽
76) 김희현, 위의 논문, 38쪽

롭고 고인의 한번만이라도 만져볼 수 있다면, 육성을 한번만 들어볼 수만 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 끝도 없이 커진다.

> 사고사로 가는 게 정말 다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예 준비 안 돼 있는데 바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런 처참한 경우가 또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아이들, 나를 통해서 나하고 인연을 맺어서 20년을 살다가... 20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요..(오열함)[77]

인용한 논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을 떠나보낸 참여자는 자식과 인연을 맺은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식이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 말한다. 함께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이도 이처럼 애통한데 도랑선비와 첫날밤 단 하루만을 함께 보낸 청정각시의 마음은 어떨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딱 한번만 고인을 만날 수 있기를, 고인을 만나 손 한 번 잡아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고인을 생각하며 그리움에 힘든 시간을 보낸다.

> 다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가슴에 남아있는 이 그리움...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아이인데, 단 한번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다시 보내고 싶어요. 꼭 가야 할 길이라면... 마지막 차가운 아이의 시신을 받고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안아 라도 줄걸... 한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이가 꿈에 나왔더라구요~ 환하게 웃으며, 참 신기한 일이죠? 49제 되는 날 제가 새로 이쁜 원피스를 사서 준비해뒀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서는(울음), '엄마 나 갈게~~'하더라구요..(울음)[78]

청정각시는 도랑선비가 자신을 떠나던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선비를 만나지 못했다. 다음날 하인이 고인의 부고를 전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랬기에 각시는 계속해서 선비의 환영을 본다. 황금산성인에게 애걸하며 선비를 만날 방법을 묻고 그 방법을 따르며 손 한번 잡아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각시가 안내산 금상절로 향하는 길을 닦으며 이승과 저승의 그 중간,

---

77) 김희현, 위의 논문, 27쪽
78) 김희현, 위의 논문, 30쪽

무의식의 세계로 빠진 것은 이처럼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랑선비 청정각시>에서 갑작스러운 선비의 죽음을 겪고 각시가 보이는 반응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다. 단 한번, 짧았던 혼인날의 기억으로 각시는 남은 시간을 살아간다. 혼인날 하루로 각시의 인생은 바뀐다. 출가외인이 되어 집을 떠나 시댁으로 자리를 옮기고 전과 다른 삶을 산다.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선비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신화는 슬픔에 빠진, '심리적 죽음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한다.[79] 떠나보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던 죽은 사람을 보내주고 그 상실을 수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준다. 그래야만 길고 긴 슬픔에서 벗어나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 <지장본풀이>의 지장아기

3.2.1. 불행의 성격 : 평생을 따라다니는 태생적 불행

지장아기는 태어나서 세 살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리며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런데 네 살이 되던 해에 뜻밖에 불행과 마주하는데 자신을 사랑해주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모두 연이어 죽는 불행이다.

> 늬설이 나는 해 할마님 하르방 죽어야 가는고 다싯설 나는 해 설우신 아바지 죽어야 가더고 여슷설 나는 해 설우신 어머님 오도독 죽는고[80]

지장아기가 태어나고 자라 자아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찾을 무렵부터 불행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불행은 아주 오랜 시간 반복해서 일어난다. 지장

79)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한 가족 구성원의 슬픔에 대해 연구한 김현희 또한 '상실을 수용하고 삶을 버티어내기'를 통해 사별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의를 펼쳤다. 김현희, 위의 논문, 77쪽

80) 현용준, 위의 책, 241쪽

아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2년 동안 가족구성원 네 명이 죽는, 말 그대로 줄초상을 겪고 홀로 남는다. 혼자 남은 지장아기는 외삼촌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개가 먹던 접시에 아주 적은 양의 밥을 받는 구박을 받는다. 지장아기의 삶에 큰 불행이 드리웠지만 그녀는 착한 성품을 잃지 않는다. 옥황의 부엉새가 내려와 지장아기를 보살피고 착하다는 소문이 동서로 나서 혼담이 오갈 정도로 올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 지장의 아기씨 착흐덴 소문이 동서로 나더고 이러궁 저러궁 열다섯 십오세 왕구녁 차시난 서수왕 서펜의 문수의 덱에서 문혼장 오더고[81]

지장아기가 열다섯이 되던 해에 서수왕 문수댁과 혼담이 오가고 지장아기는 혼례를 올린다. 지장아기의 결혼생활은 행복하게 시작한다. 아들을 낳고 착하고 살림도 잘하여 집안의 유기, 전답, 소와 말을 모두 물려받는다. 어릴 적 겪었던 불행은 모두 사라지고 행복한 앞날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장아기의 불행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가장 행복했을 때에 다시 찾아온다. 친정식구의 불행이 자라서 정체성을 찾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면 시집식구의 죽음은 결혼하고 일 년이 지나 가족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 여레숫나는 헤 씨할망 하르방 오독독 죽는고 여렐곱나는 헤 씨아방ᄁᆡ지도 죽어야 가는고 예레둡나는 헤 설우신 씨어멍 죽어나 가는고 열아홉 나는 헤 설우신 낭군님 오독독 죽는고 셍남ᄌᆞ 아울라 다 죽어 가는고[82]

시집식구들의 죽음은 4년 동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부모, 남편, 자식까지 총 여섯 명이 죽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친정식구의 죽음보다 기간이 길고 죽는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다. 친정식구가 죽고 외삼촌 집에 살며 구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시누이에게 구박을 받는다.

지장아기의 삶은 한 번도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인 적이 없다. 네 살부터

81) 현용준, 위의 책, 241-242쪽
82) 현용준, 위의 책, 242-243쪽

불행이 시작됐기에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녀의 성품은 옥황의 부엉새가 도움을 주고 착하다는 소문이 동서로 날만큼 올곧은지만 불행은 끝없이 반복되며 지장아기의 삶을 망가뜨린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네 살에 조부모가, 다섯 살에 아버지가, 여섯 살에 어머니가 죽는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외삼촌 집에서는 개가 먹던 그릇에 밥을 받아먹는다. 열다섯에 서수왕 문수댁에 시집을 가는데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또다시 열일곱에 시아버지가, 열여덟에 시어머니가, 열아홉에 남편과 아들이 죽는다. 시댁식구가 죽자 이번에는 시누이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시누이에게서는 죽일말, 잡을말을 듣고 벼룩과 이가 닷 되인 방에서 지내게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자신을 구박하고 욕하는 사람들만 살아서 모두가 지장아기를 탓하는 삶을 산다.

지장아기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반복된 불행으로 인한 고립이다. 고립은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으로 나뉘는데 정서적 고립은 인간관계에서 친밀감과 애착을 표현할 수 있는 가까운 대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사회적 고립은 집단 내에서 수용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83] 지장아기는 삶은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에 모두 해당되는 삶이다. 어릴 적 친정식구가 죽으며 정서적 친밀감과 애착을 표현할 상대를 갖지 못했고,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지만 이들도 죽으면서 다시 혼자가 된다. 여기에 외삼촌과 시누이가 지장아기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더해진다.

지장아기는 살면서 아무런 근심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겪지 못했다. 조금 행복하려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이 사라졌나 싶으면 다시 찾아오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일생은 불행으로 얼룩져 화를 낼 수도,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흔히 이런 경우를 두고 '살(煞)'이 끼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살(煞)'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고 파괴하는 독하고 악한 기운을 뜻한다. 살을 없애는 방법을 흔히 '살풀이'라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볼 때에 살은 끼어 있는 것을 풀어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84] 지장아기는 자신이 타고난 살을 풀지 못하고 평생 살의 그늘에서 살

83) 조희옥, 「학습된 무기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고립, 공감을 매개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학위논문(석사), 2011

았다. 그 그늘이 넓고 깊어 벗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살이다. 지장아기의 불행은 아무 이유도 없이 주변사람들이 반복해서 죽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태생적 불행이라 할 수 있다.

3.2.2. 대응 및 결과 : 좌절과 회피 끝의 인정과 탈피

타고난 태생적 불행이 반복될 때마다 지장아기는 자신의 사주팔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년의 팔ᄌᆞ(八字)여/ 나년의 사주(四柱)여/ 어딜로 가리야[85]

남을 탓할 수도 없는 이유 없는 불행이 반복되면서 지장아기는 남을 원망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탓한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 벌어진 불행이 아니기에 타고난 사주팔자를 탓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지장아기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사주팔자를 탓하는 것은 진정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계속되는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불행을 해결하려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 사주팔자를 탓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행에 지장아기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기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반복한다.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자신의 사주팔자 탓이라 생각하는 것을 '팔자귀인'이라고 한다. 팔자귀인은 한(恨)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 한(恨)은 원(怨)의 감정에서 출발하여 심리 내적 과정을 통해 한으로 전환된다. 원(怨)은 타인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받거나 응당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자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점차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억울함이나 분함을 그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외부의 사람에서 자기 스스로

84) 김효경, 「살(煞)과 살풀이의 존재양상 -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9집, 한국무속학, 2014, 214쪽
85) 현용준, 위의 책, 241쪽

에게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전환과 더불어 분노 감정의 약화와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심리 내적 적응 과정이 일어난다. 당사자는 자신의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불행을 당한다고 일단 생각하지만 또한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팔자 때문만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심을 동시에 느낀다. 왜 내 팔자만 이런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회의, 분노, 슬픔, 체념, 억울 등의 강력한 감정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기복이 반복되면 감정의 약화와 더불어 자신의 신세를 조망하면서 '서럽다'거나 '비참하다' 등의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보니 그렇다 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고착된다.[86]

설명에 맞춰 지장아기의 팔자귀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장아기의 팔자귀인은 친정식구의 죽음에서 시작한다. 네 살부터 시작된 가족들의 이유 없는 죽음은 여섯 살이 되어 자신을 사랑해주던 사람이 모두 죽은 후에야 끝난다. 불행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데 탓할 상대가 없는 상황이다. 상대가 없는 분노와 슬픔, 억울함은 지장아기 스스로의 팔자를 탓하게 만든다. 그렇게 겨우 여섯 살 어린 나이에 지장아기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시집간 후로 한 번 더 반복된다. 반복된 죽음과 불행은 지장아기의 팔자귀인, 모든 불행을 자신의 사주팔자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더 확고하게 한다.

고착된 한의 감정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제 3자적 시각이 형성된다. 즉 나의 불행은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도 한, 자신의 신세를 남의 것이나 마치 하나의 물적 대상으로 놓고 관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원인 제공자의 구체적 행위나 자신의 실책은 단순한 최초의 시발점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만들게 한 것은 나의 팔자인 것이다.[87]

그렇게 반복되는 불행에 좌절하고 상황을 회피하며 평생을 고립된 삶을 살던 지장아기는 어느 날 우연히 대사와 소사를 만나게 된다. 대사와 소사

86) 김지영·김기범, 「한국인의 자기신세 조망양식으로서 팔자(八字)의 이야기분석과 통제신념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 11권, 한국심리학회, 2005, 90쪽
87) 김지영·김기범, 위의 논문, 91쪽

를 만나 지장아기가 건넨 말은 자신의 사주팔자를 봐달라는 말이었다. 그간 쌓아두었던 평생의 한이 묻어나오는 말이다.

대ᄉᆞ야 소ᄉᆞ야 가는 질 멈춰서 나 팔ᄌᆞ(八字) 골립서 나 ᄉᆞ주(四柱) 골립서[88]

지장아기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해본 적 없는 인물이다. 친정식구가 죽었을 때도, 시댁식구가 죽었을 때도, 홀로 남아 외삼촌과 시누이에게 온갖 구박을 들었을 때도 혼자 묵묵히 사주팔자를 탓하기만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의 팔자를 탓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삶 지장아기가 대사와 소사를 만나 사주팔자를 봐달라는 부탁한다. 혼자서 고민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 시도이다.

대사와 소사는 지장아기의 사주를 보며 초년운은 좋은데 만년운이 나쁘다며 친정부모, 시부모, 죽은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전세남, 후새남 굿을 하라 말한다. 전새남 굿은 병자를 살려주기를 기원하는 굿이고 후새남 굿은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빌어주는 굿을 말한다. 즉 지장아기의 곁에서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는 굿이다. 지장아기는 일생을 불행에 갇혀 스스로의 팔자를 탓하면서 한 번도 죽은 이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 이는 지장아기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불행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인한 고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장아기에게 대사는 굿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장아기는 대사의 말에 따라 정성스레 굿을 준비하는데 <지장본풀이>는 이 과정을 매우 자세히 보여준다. 여러 신께 올리는 천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못에서 뽕잎을 따는 과정부터 누에치는 장면까지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지장의 아기씨 서천강 연뜰에 저 뽕낭 싱근다. 싱근 날 나는고 나는 날 입돋나 입돈 날 따다가 누에 알 껩는고 누에 밥 멕이고 누에 즘 재와서 누에 씰빠는고 꼬리를 감는고 지장의 아기씨 물멩지 강멩지 짜아도 가는고 주천강 연못디 연서답 가는고 석ᄃᆞᆯ은 열흘은 벡일은 발렌다[89]

88) 현용준, 위의 책 244쪽
89) 현용준, 위의 책. 245쪽

인용한 부분은 지장아기가 여러 신에게 올리는 천을 만들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잎을 따다 누에알을 놓고, 누에 밥을 먹이고 실을 빼어서 명주천을 만든 후에 그 천을 빨래하여 백일을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한 부분이다. 지장아기는 이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들 천을 신들께 올리고 남은 천으로는 굿에 쓰이는 북, 장구, 징, 꽹과리 등 악기의 끈을 만들기까지 한다. 상에 올릴 떡을 만드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떡을 만들 쌀을 불리는 것부터 체를 쳐서 굵은 가루와 자잘한 가루를 나누고 솥에 찌는 과정이 매우 자세하다.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지장본풀이> 중 약 절반이 굿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쓰인다. 단순히 지장아기의 정성스러움을 드러낸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분량이다. 지장아기의 불행서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굿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굿은 무당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의를 뜻한다. 제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신앙대상으로서의 신, 이 신을 신앙하여 제의를 올리는 신도, 신과 신도의 사이에서 제의를 진행하는 전문적인 무당이 있어야 한다.[90] 그런데 지장아기의 굿에서는 신도와 무당이 같은 인물이다. 제의를 올리는 신도도 지장아기이고 신과 신도 사이에서 제의를 진행하는 무당도 지장아기이다. 때문에 지장아기는 위로를 받는 자이자 동시에 위로를 하는 자가 되는데 이는 지장아기의 서사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지장아기는 남을 죽이는 '살(煞)'의 속성을 타고난 인물이다. 남을 죽이는 속성을 타고났다 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지장아기를 '필살녀(必殺女)라 명명하기도 했다.[91] 평생을 타고난 살(煞)을 안고 살며 사주팔자를 탓하던 지장아기는 굿의 과정에서 비로소 그 살을 풀어내고 자유로워진다. 죽은 자를 위로하는 굿이 곧 그녀의 타고난 살을 풀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장아기가 무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헌선은 무당이란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혹심한 고립과 고독의 과정을 겪은 자, 자기의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스스로 곪아터져 질병을

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5%BF&ridx=0&tot=262
91) 이수자, 위의 논문, 287쪽

앓았던 인물이라 정의한 바 있다.[92] 지장아기는 타고난 살(煞)로 인해 긴 불행의 시간동안 죽음을 곁에서 정서적, 사회적 고립으로 죽음과 같은 상태 놓여있던 인물이다. 앞서 설명한 무당의 정의에 부합한다. 굿을 통해 지장아기가 타고난 살(煞)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되는 이유에서 그녀의 존재적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이 된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태생적 불행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사주팔자를 탓하며 회피했던 지장아기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곁에서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통해 그 불행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장아기가 오랜 시간 불행에 고통 받아 그 혹심한 고립과 고독의 과정을 겪고 스스로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무당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지장아기가 살(煞)에서 벗어나 존재적 거듭남을 겪었음에도 그녀는 죽어 새몸에 다시 태어나 조신(鳥神)이 되고 흘그새, 악심새, 이열새 등 인간 세상에 흉험을 주는 존재가 된다. '새'라는 명칭은 '邪(사)'에서 유래한 말로 사악한 것으로서 갖가지 일에 훼방을 놓고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한다.[93] 뿐만 아니라 예사와 다른 분잡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장을 일루왔다(일으켰다)'[94]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살아생전의 지장아기와 지장아기가 환생한, 혹은 지장아기의 몸에서 난 악새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악새는 지장아기가 가지고 있던 살(煞)일 가능성이 높다. 굿을 통해 풀어낸 살(煞)이 지장아기가 죽으며 나와 세상에 퍼진 것이다. <지장본풀이> 각 편 중 이용온, 정태진본에서 지장아기와 살(煞)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먼저 정태진본의 경우 지장아기와 악새인 지장새가 구분되어 있다.

> 지장의 아기씨 부모야 조상들 신가슴 올려두고 어딜로 가리요. 은장의 거리로 놋장의 거리로 다 춧아 가는고 가다가 보난에 지장새 앉아서 지장씰 감더라 요새야 저새야 주어나 훨쭉 훨쭉 훨짱[95]

92) 김선헌, 지연화, 「굿의 치유 과정 연구」, 한국무속학 Vol.32, 한국무속학회, 2016, 8쪽
93) 현용준, 앞의 책, 28쪽
94) 현용준, 앞의 책, 주석 1439인용, 248쪽
95)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1997, 308쪽

굿을 마치고 정처 없이 걷는 지장아기의 앞에 지장새가 나타나 지장아기를 감싼다. 그러자 심방은 '훨쭉'이라는 말로 새를 쫓는다. 굿을 통해 풀어난 살(煞)이 다시 지장아기를 찾아오자 '훨쭉'이라는 소리를 통해 내쫓아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용온본의 경우 <지장본풀이> 각 편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결말을 맺는데, 굿을 마친 지장아기가 악새가 아닌 통부처로 환생한다.

> 지장의 아기씨~ 좋은 일 허였져~ 서천은 꼿밧에~ 통부체 몸으로~ 환싱(還生)을 시기난~ 서천꼿밧데~ 새 앚아 오는고~ 요 새를 ᄃᆞ리자~ 쏠 기린 새랑~ 쏠 주며 ᄃᆞ리고~ 물 기린 새라근~ 물 주며 ᄃᆞ리자~ 주어라 헐쭉~[96]

다른 각 편에서 지장아기는 모두 부정적인 '새'로 환생하는데 비해 이용옥본에서는 지장아기가 죽은 이를 위해 굿을 올리는 좋은 일을 하였기에 통부처의 몸으로 환생한다. 한진오는 이용옥본에 주목하여 지장아기가 서천꽃밭의 부처로 환생했다는 내용이 원형이고 근대적 변화를 거치며 현재의 내용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97]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용옥 심방의 해석을 덧붙이는데 이는 지장아기를 감싼 지장새를 쫓는 정태진본과 그 맥락이 일치한다.

> 지장아기씨는 한 맺힌 인생을 살았으되 말년에 승려가 되어 선업과 적덕을 쌓아 서천꽃밭의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생전에 한이 맺힌 채로 죽거나 악업을 일삼았다면 새로 환생했을 것이지만 선업을 쌓았으므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부처로 환생해 좌정한 지장아기씨 근처에 부정한 새들이 범접하므로 그 새를 달래고 내쫓는 것이다.[98]

---

96)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226쪽

97) 비련의 여인 지장이 새남굿을 마련하고 사후에 부처로 환생했다는 고형의 본풀이가 근대적 변화를 거치며 새풀이에 나타는 화소를 수용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여기서 근대적 변화란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나타났던 민중문화의 대대적인 변화를 말한다. (중략) 그러나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 변화된 민중문화가 제주에도 유입되었다고 보면 지장본풀이는 그 원형이 지녔던 내용과 형식에 큰 변화를 맞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지장분풀이의 연행방식에서 드러나는 근대적 특징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한진오, 앞의 논문, 28쪽)

98) 이용옥 심방 전화인터뷰 요약. 2009. 6. 24.(한진오, 앞의 논문 각주 25번 재인용, 29쪽)

무속은 신에 대한 제의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신에 대한 모습을 말로 형상화 한 것이 바로 무속신화이다.[99] 신화 내용에는 제의를 받는 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출생, 성장, 공업, 신으로의 좌정담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지장본풀이>의 경우 지장아기의 신직이 분명하지 않아 신화의 성격과 의미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김헌선은 <지장본풀이>를 비속한 일생을 다루는 이야기로 보고 동해요왕뚜님아기와 마찬가지로 섬겨지기보다는 축출되기 위해 마련된 신[100]으로 보았고, 전주희는 <지장본풀이>를 무속신화라기 보다는 단지 부정한 기운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서사무가'라는 결론내리기도 했다.[101]

지장아기는 평생을 타고난 살(煞)의 속성으로 고통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굿을 통해 살(煞)을 풀어내고 나아가 남을 위로하는 속성을 가진 인물로 거듭난다. 지장이기는 굿을 청하는 신도이면서 동시에 굿을 진행하는 무당이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극심한 고행을 겪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장아기는 자신처럼 타고난 운명이나 살(煞)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그 살(煞)로 고통 받은 이를 위로한다. 비록 신으로의 좌정담은 없지만 지장아기는 이미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분이라는 타고난 운명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았을 백정들이 지장아기를 조상수호신으로 모시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3.2.3. 지장아기 서사의 특수성과 전형성

지장아기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태생적 불행을 겪으며 좌절하고 사주팔자에서 원인을 찾는 회피의 과정 끝에 불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졌던 살(煞)의 기운을 풀어낸 인물이다. 때문에 지장아기는 불행을 타고났다는 점에서 서사의 특수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타고난 불행에 고통 받는 이들과 자신의 불행을 사주팔자에서 찾는 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서사의 전형성을 보인다. 먼저 지장아기처럼 타고난 불행에 고통 받는 이들로 백정을 들 수 있다.

---

99) 이수자, 「임석재의 <관북지방무가>에 나타난 무속신화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27권, 한국구비문학회, 2008, 11쪽
100) 김헌선, 앞의 논문, 107쪽
101) 전주의, 위의 논문,

지장아기와 백정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불행을 타고났다는 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살(煞)의 속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백정은 조선시대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다. 신분제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던 서얼, 평민, 심지어 노비보다도 더 낮은 존재였으며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장례식에 상여를 사용할 수 없었고 묘지도 평민과 구분하여 사용했으며 평민의 집을 방문하는 일에도 제한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양반은 물론이고 평민들도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백정에게는 반말을 썼다.[102] 이 모든 차별은 타고난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당연시되었다. 그리고 신분이 천하기에 소·돼지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는 일을 도맡아했다.

지장아기가 태어나 자아정체성을 찾을 무렵부터 타고난 불행을 알아차린 것처럼 백정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자아정체성이 생기고 사회적인 관계를 인식했을 순간부터 세상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반말을 하는지, 왜 자신은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갈 수 없는지,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가락질 하는지 등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차별을 인식하면서 불행이 시작되고, 그 불행은 자연스럽게 가축을 죽이는 살(煞)의 행위로 이어진다. 지장아기에게 벌어지는 불행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타고난 살(煞) 때문이지만, 백정은 도축이 생계수단이었기에 어느 정도 의도한 살(煞)이라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백정도 타고난 신분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가축을 잡는 일을 선택한 것이니 의도적인 행위라기보다 타고난 신분에서 비롯한 불행이라 볼 수 있다.

백정이 지장아기를 조상신으로 모시는 것은 지장아기의 서사와 백정의 서사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다. 거무영천굿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장본풀이를 구송한 다음 도살아지장본을 구송한다. 도살아지장본은 소, 돼지를 잡아 각 부위를 지장에게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축한 고기의 전후좌우 갈비뼈, 머리, 목 부분 고기를 지장에게 검사받고 지장의 허락 하에 도살을 마친다. 살(煞)기운을 타고나 죽음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지장아기에게 허락

102) 신종한, 「근대 신분제도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재편 – 형평운동과 백정들의 일상」, 동양학 47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0, 215쪽

을 받으며 자신들의 살생을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모습이다.

지장아기 서사가 갖는 전형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불행과 함께하며 수많은 좌절을 겪고 그 좌절의 끝에서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사주팔자를 탓하는 사람들의 서사를 대표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사주팔자를 탓한다. 관계가 얽혀 있기에 혼자 노력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방법이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일에 대해 운명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있잖아. 노력으로서도 잘 안 되는 것, 운명적이라는 거랄까. 하늘이 내린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갈등이 많은 일들이 얽혀있을 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지어질 때, 못 배웠거나 안 배웠다는 것을 떠나서 모든 귀착점이 나로 인해 일이 마무리 돼야 될 때, 약간 운명론적일 때….”[103]

인용문은 왜 팔자타령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55세 여성의 응답이다. <지장본풀이>를 접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지장아기가 탄식하며 마음속으로 했을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접하고 지장아기가 내뱉은 사주팔자에 대한 한탄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장본풀이>는 타고난 상황 때문에, 혹은 여러 관계에 갇혀 스스로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서사를 대표하는 전형성을 가진다. 세상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기에 특수하다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을 수 있기에 삶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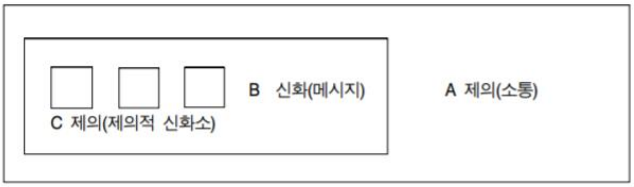
103) 김지영·김기범, 「한국인의 자기신세 조망양식으로서 팔자(八字)의 이야기분석과 통제신념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 11권, 한국심리학회, 2005, 93쪽

제4장 불행의 의례적 체험과 치유 효과

3장에서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 서사분석을 통해 두 신화에 담긴 불행의 의미와 불행극복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정각시와 지장아기가 겪는 불행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두 인물 모두 불행으로 인해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상징적 죽음과 굿을 통해 거듭남의 과정을 겪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화라는 텍스트 속에서 청정각시와 지장아기의 불행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굿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둘의 불행은 사회적인 것이 된다. 망자를 위로하는 굿에서 극단적 불행의 상황에 놓인 두 인물의 서사를 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목적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신화와 제의의 관계를 살펴볼 때, 먼저 의소소통의 장으로서 제의가 있으며, 그 제의 속에서 생성되고 소통되는 메시지로서 신화가 있다. 이 신화는 제의라는 소통의 양식적 특성과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영향을 받게 되며, 그러한 성격이 신화 속에 반영되어 나타난다.[104] 신화란 제의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기에 신화라는 텍스트(text)를 분석한 내용으로 그 신화가 속한 제의의 성격과 콘텍스트(context)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굿은 '신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제의이다. 본고는 굿의 구조를 네 개의 단계로 인식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제의 참여자가 '또 다른 나'와 불행을 공유하며 위안을 겪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신화 속 주인공과 제의

104) 오세정, 위의 논문, 26쪽 오세정은 제의라는 틀과 그 속에서 구송되는 신화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도출하였다.



오세정의 논의에 따르면 의사소통 차원의 제의(A)가 있고, 이 제의 속의 신화 메시지(B)는 제의적 신화소(C)로 구성된다. 메시지가 외부 틀의 규범에 따라 제의적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서사 속 구성요소로서 제의적 신화소들이 어울려 특정한 이념을 산출하며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는 특정한 목적과 효용을 위해 의미작용 하게끔 하는 제의화의 원리 때문이다. 때문에 제의적 신화소와 신화소의 결합으로 인한 의미작용을 통해서 제의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악하게 된 제의의 성격을 갖고서 다시 신화 메시지와 제의적 신화소의 성격을 조명할 수 있다는 논의를 펼쳤다.

참여자가 일체감을 느끼면서 감정을 표출, 토로하는 과정이며, 세 번째 단계는 신과 소통이 가능한 무당을 매개로 하여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네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바탕으로 하여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4장에서는 3장의 작품분석과 원전을 통해 굿의 네 개의 단계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망자를 위로하는 일은 곧 남은 자를 위로하는 일이다. 망자의 혼을 달래는 행위를 통해 남은 자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받고자 한다. 이는 죽은 자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금 활기찬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행위이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는 망자를 위로하는 굿인 망묵굿과 시왕맞이 속에서 구송되며 신화 속 주인공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는 망자를 떠나보내고 남은 자에 속한다. 서로 다른 이유로 소중한 이를 먼저 보내고 남은 두 주인공은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이다. 죽은 도랑선비를 단 한번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청정각시의 간절함, 소중한 사람들의 이유 없는 죽음에 내뱉는 지장아기의 한탄은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때문에 두 인물은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다.

신동흔은 무속신화의 치유적 기능이 무속의례의 핵심적 의미요소라 말했다. 신화는 '동질성' 내지 '일체감'을 핵심적인 미적 원리로 삼는 이야기 양식이며 굿에서 신화가 길고 유장하게 구송되는 과정은 인간과 신이 깊고 내밀한 소통을 이루고 갖가지 맺히고 얽히고 뒤틀린 것들을 풀어내는 치유의 시간이라 인식했다.[105] 본고는 신동흔의 논의를 받아들여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가 치유적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 굿의 삼단계 구조 속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굿과 신화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05) 신동흔, 위의 논문, 33쪽

4.1 ‘또 다른 나’의 불행 공유를 통한 위안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 부정적인 정서를 타인과 나누면 그 슬픔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개인의 슬픔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는 속담이다.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정서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슬픔을 해소할 수 있다. 정서경험에 대한 대화에는 상황에 대한 사실과 느낌 등의 정보와 함께 이 경험을 내가 누군가와 나누고 지지나 조언을 얻고자 한다는 관계적 측면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서경험에 대한 대화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106]

제의참여자는 ‘굿’이라는 제의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체험을 한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는 사회적 지지와 인정, 이해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부적정인 정서를 초래하고 슬픔을 유발한 사건에 대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도랑선비 청정각시> 속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 속 지장아기가 그랬듯이, 극단적 불행으로 인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대게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홀로 감당해야하는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 용납되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슬픔을 쏟아내는 공간이 바로 굿이 연행되는 공간이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는 주인공의 고립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주인공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를 제외하고는 등장하는 인물도 극히 드물며 등장해도 아주 잠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두 인물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렇기에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 속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한다. 그러나 제의참여자가 참여한 제의현장은 그렇지 않다. 신화 속 주인공과 정반대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굿판’의 모습이다. ‘굿’이라는 제의현장에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 당면한 삶의 문제가 그 개인과 가정의 고립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이면서 아울러 마을 공동체와 신들도 관심을 갖고 해결을 기원하는 공동의 문제가 된다.[107] 굿판은 같은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 그 불행을 겪어

106) 고예나,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 정서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16, 10쪽

본 사람이나, 불행을 겪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느끼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 공간에서 개인은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사회구성원 다수와 아픔을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된다.[108]

4.2. 주인공을 매개로 한 감정적 토로와 표출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연행되는 망묵굿과 <지장본풀이>가 연행되는 시왕맞이는 모두 망자를 위로하여 저승으로 잘 보내기 위한 굿이다. 그렇기에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까운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대표되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런 참여자들에게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는 '나보다 더 슬픈 나'로서 참여자들이 가진 감정을 대신해서 표출하고 토로한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감정은 갑작스러운 도랑선비의 죽음을 겪고 쏟아내는 청정각시의 슬픔이고 <지장본풀이>에서 두드러지는 감정은 자신의 팔자에 대한 지장아기의 탄식이다. 두 인물의 불행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슬픔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청정각시가 옥상상제에게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황금산 성인을 붙잡고 애걸하며 슬픔을 쏟아낸다면 지장아기는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아주 짧은 한 마디에 살면서 느낀 한을 담아낸다.

무속신화는 '동질성' 내지 '일체감'을 핵심적인 미적 원리로 삼는 이야기 양식이다. 작중상황과 전승자 사이에 일정한 비판적 거리가 개재하는 민담이나 전설, 소설 등과 달리 신화에서는 양자 간의 정서적 밀착이 두드러진다. 그 밀착은 특히 작중인물과 수용자의 일체성 인식 내지 체험으로 구체

107) 이용범, 「굿,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의 의례」, 한국무속학 제 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78쪽

108) 조정현은 굿판을 감정공유의 장을 넘어선 신, 인간, 자연 간의 맺힌 갈등과 상처를 풀어주고 서로 나누는 상생과 치유의 장으로 해석한 바 있다. 굿판은 그동안 서로 충돌하고 갈등해온 마을공동체와 주변의 다양한 판들이 상생하고 치유하는 시공간이며 굿판을 통해 그동안의 갈등, 상처, 부조리, 원한, 희노애락 등을 태초와 같은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고 새로 거듭난 새판을 다시 열어간다고 보았다. 조정현, 「축제적 상생과 치유의 '판문화'로서 굿판의 성격과 기능」, 한국무속학 제 28집, 한국무속학회, 2014, 327쪽

화된다.[109] 따라서 무속신화가 소통되는 제의에서는 신화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의참여자들이 신화 속 인물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느냐가 중요하다.[110] 무속신화 속 문제 상황이 제의가 연행되는 현장과 동일시되고 신화 속 인물이 제의참여자가 되어 신화 속 문제 상황의 해결이 현실의 문제 상황 해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화 속 인물과 제의참여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동일한 문제 상황에서 신화 속 인물이 보이는 감정이다.

청정각시의 슬픈 곡성을 들은 옥황상제는 황금산성인을 시켜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으라 명한다. 성인이 중의 모습을 하고 청정각시를 찾아가자 각시는 버선발로 나와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한다.

> “동냥이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말로 달라면 말로 줄 테요, 되로 달라면 되로 줄 테니 성인님 아무쪼록 우리 남편 한 번 만 만나게 해주시오.”

돈이야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죽은 도랑선비를 단 한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청정각시의 마음은 망묵굿을 올리는 제의참여자의 마음과 같다. 말 그대로 비명횡사하여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망자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 손이라도 잡고 싶은 남은 자의 심정을 청정각시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 과연 삼일 만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다. 낭자는 너무 좋아서 남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남편은 엄숙한 얼굴로 “나는 인간과 다르니 어찌 이러오.” 하고 사라져 버렸다.
>
> 과연 남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낭자는 아-하고 남편을 안고자 하였을 때, 남편의 모습은 다시 사라졌다.
>
> 도랑선비가 부처님 뒤에 나타났을 때, 낭자는 또 남편을 안고자 하였음으로 남편 모습은 다시 사라져버렸다.

각시는 단 한번이라도 선비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여기서 각시가 바라는 만남은 단순히 상대가 눈앞에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눈앞의

109) 신동흔, 위의 논문, 35쪽
110) 오세정, 위의 논문, 139쪽

상대가 등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상대를 만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죽음으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음을 뜻한다. 시각으로만 존재하는 상대는 환영일 뿐이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대는 실재가 된다. 청정각시가 도랑선비의 손을 잡고 안아보려 한 것은 눈앞의 대상이 실재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다. 그러나 청정각시는 도랑선비를 볼 수 있을 뿐 만지지 못한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청정각시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볼 수만 있고 만질 수는 없는 선비는 각시의 간절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환영일 뿐이다. 각시의 눈앞에 나타난 선비가 실재가 아닌 환영임을 알게 되면서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유혈이 낭자하고 손이 불타는 고통이 시작된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각시의 신체적 고통은 심리적 고통의 반영이다. 소중한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겪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다. 매일 밤 꿈에서, 함께 했던 공간에서 죽은 이의 환영을 보는 남은 자가 단 한 번이라도 망자를 어루만지고 싶어 흘리는 눈물이다. 이 같은 심정은 이야기 속에서 청정각시의 일이지만 이야기 밖에서는 제의참여자 자신의 일이 된다. 죽은 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환영을 보고, 손 한 번 잡아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을 겪어본 사람에게 청정각시는 단순한 신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나보다 더 슬픈 나, 또 다른 나’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을 실감할 때까지의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을 <도랑선비 청정각시>는 신체적 고통에 비유하여 신화를 읽고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임석재가 영상으로 채록한 망묵굿 영상을 보면 황금산성인이 각시에게 고난을 내리는 장면은 사설형식을 사용하는데 비해 청정각시가 슬픔을 쏟아내는 장면은 가락을 붙이고 장구 등 악기를 사용하여 구슬프게 구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정각시와 제의참여자의 일체감을 높이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청정각시가 슬픔을 쏟아낸다면 지장아기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탄식하는 방법을 택한다. 지장아기는 자신의 사주팔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아주 짧게 탄식하는데 이는 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상황에서 등장한다.

나년의 팔ᄌᆞ(八字)여/ 나년의 사주(四柱)여/ 어딜로 가리야[111]

지장아기의 일생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지장아기의 슬픔에 공감하게 된다. 인생 전반에 드리워진 불행의 그늘에 갇혀 화를 내지도, 슬픔을 쏟지도 못하고 한탄만 하는 지장아기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이유도 없이 주변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주변사람들에게 온갖 구박을 당하기까지 한다.

웨삼춘덱으로 시양을 가더고 가는 날부터사 개 먹단 젭시예 술랍을 달렌다.[112]

지장의 아기씨 씨누이 방으로 ᄒᆞᆫ 지방 넘으난 씨누이 나뚤년 죽일 말 ᄒᆞ더고 씨누이 방으로 두 지방 넘으난 씨누이 나뚤년 잡을말 ᄒᆞ더고 씨누이 나시난 베록이 닷뒈여 ᄂᆡ가 닷뒈여[113]

지장아기는 철저히 고립된 환경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의 삶을 산다. 주변 사람을 죽이는 '살'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제의 원인이 되는 '살'이 지장아기가 선택한 속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타고난 속성으로 지장아기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정각시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장아기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고립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회에서 배제된 삶을 살았던 백정이 지장아기를 조상신으로 모신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백정을 향한 차별과 억압, 배제는 관습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관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강화되었는데, 백정은 좋은 의미를 가진 글자로 이름을 지을 수 없어 대게 천한 이름을 가지고 남성 갓 대신에 패랭이를, 여성은 비녀를 꽂는 대신 둘레머리를 해야 했다. 또한 백정들은 백정끼리 결혼하였고 양민들과 묘 자리를

111) 현용준, 위의 책, 241쪽
112) 현용준, 위의 책, 241쪽
113) 현용준, 위의 책, 243쪽

같이 쓸 수 없었다.[114] 이렇듯 백정은 지장아기가 그랬듯 사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철저히 배제되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평생을 타고난 신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들은 지장아기에게서 '나보다 더 슬픈 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며 그녀를 조상신으로 모셔 위안을 받는다.

자신이 선택과는 상관없이 고립된 상황에 놓인 사람은 비단 백정뿐이 아니다. 지장아기의 한탄에도 등장하는 '팔자'라는 말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팔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운한 사건과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팔자 사납다', '팔자 도망은 못 간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팔자'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야기이기에, 스스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일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지장본풀이>를 접하며 자연스레 지장아기의 서사에 접속하여 공감하고 그녀와 함께 울며 그동안의 슬픔을 풀어내게 된다.

신화 속 주인공에 공감하고 일체감을 느껴 감정을 쏟아낸 후, 제의참여자는 무당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내려온 망자를 만난다. 환영으로만 보고 직접 어루만지지 못했던 망자의 현신을 굿판에서 마주한다. 망자의 옷을 입은 무당을 껴안고 그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감정을 쏟아낸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 죽었음을 실감하지 못해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죽은 아버지의 옷을 입은 무녀가 반백의 할머니를 끌어안고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내 마누라."하고 울음을 터뜨리니 온 식구나 무녀를 끌어안고 뒹굴면서 더 큰 울음판이 벌어졌다. 아들과 딸들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매달리고 할머니는 '영감, 영감'하면서 우는데 무당은 정말 남편이 살아온 듯 할머니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다. 며느리도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삭이고, 친척들은 "이제서야 만났으니 어디 실컷 울어보슈."하면서 울음을 부추겼다. 진정 무당은 영감이요, 아버지였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무당의 입을 빌어, 무당의 몸을 빌어 잠깐이나마 여기 이 굿판에 나타난 것이다.[115]

---

114) 김중섭, 「조선 전기 백정 정책과 사회적 지위 – 통합, 배제, 통재의 삼중주」, 조선시대사학보 제 69집, 조선시대사학회, 2014, 33쪽

115) 황루시, 『우리 무당이야기』, 도서출판 풀빛, 2000년, 193쪽

4.3. 불행에 얽힌 신적 섭리의 납득과 수용

감정의 표출과 토로가 끝나고 그 다음은 신과 소통이 가능한 무당을 매개로 하여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제의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인 신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인간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은 신화 속 주인공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과의 슬픔공유를 통해 감정을 풀어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왜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것일까? 이는 인간존재의 특성과 연관된다.

이성(理性)에 대한 관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신적 존재와 멀어지게 만들었다. 포이에르바하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 의지, 애정으로 파악하면서 신이란 세 가지 요소의 통일이 대상화된 것이기에 신적 본질과 인간적 본질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도 없다 주장했다.[116] 이 같은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팔자'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팔자라는 말을 50대 중년층과 대학생에게 들려주었을 때,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다른 한편 '한심하다', '진부하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자타령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으로는 심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응답했다.[117] 여기에는 사람이란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의 운명이나 삶은 스스로 개척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가 이성적이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다. 바로 청정각시와 지장아기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마주했을 때이다. 불행은 청정각시의 경우처럼 사별, 교통사고 등 우연적이고 예측불허한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지장아기의 경우처럼 불우한 가정환경, 선천적 장애 등 고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인간 존재의 근간이 되는 이성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간의 존재

116) 이상익, 「동서사상에 있어서의 인간과 신 - 인간의 자기이해와 신에 대한 관념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 제3집, 국학연구소, 1990
117) 김지영·김기범, 위의 논문, 96쪽

적 한계 상황이다. 종교 혹은 제의적인 모든 행위들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상황에서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8]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살펴보았을 때 청정각시와 지장아기의 불행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불행이다. 청정각시의 불행은 도랑선비의 조상 혹은 외삼촌 등 집안의 잘못으로 나오고 지장아기의 불행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타고난 초년운이 나쁘기 때문이라 말한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죽인 죄로 이렇게 되었소.[119]

외삼촌이는 혼사에 나서서
아들이나 딸이나 외삼촌이나는 외아지비 나서서 혼사에 비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치면 둘이 영영이 사는 길이 없읍니다.[120]

마침 장가길을 떠나려는데 여러가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다. 도랑선비는 다른 날을 택해서 장가들겠다고 하는데 삼촌은 그대로 할 것을 우겨서, 장가길을 떠났다.[121]

지장의 아기씨 전선은 좋수다 후부는 눗수다.[122]

굿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데에, 계절이 바뀌는데 이유가 없듯이 신의 섭리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 불행한 상황과 고난은 무속신화에서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처럼 주인공이 이유 없는 불행을 겪으면서 그 불행이 완전히 해결 되었나 의문을 품게 되는 신화는 드물다. 이는 두 신화가 어떻게 불행을 이겨내는가 보다 어떻게 불행을 받아들이는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목할 것은 청정각시와 지장아기가 겪은 불행의 이유가 그들이 온갖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등장한다는 점이다. 신화는 처음부터 그들이 겪는 불행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118) 오세정, 위의 논문, 101쪽
119) 손진태, 위의 책 64쪽
120) 김태곤, 위의 책 79쪽
121) 임석재, 위의 책 81쪽
122) 현용준, 위의 책 244쪽

청정각시의 불행을 도랑선비의 외삼촌의 행동 때문이라 설명하는 이고분, 장채순 본에서는 청정각시에게 이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랑선비와 청정각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한다. 고난의 과정을 겪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온갖 감정들을 다 쏟아낸 후에야 신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의참여자가 신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속신화와 이것이 연행되는 굿의 체계가 잘 짜여진 하나의 시스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건에 대한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죽음같이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건일수록 그렇다. 만약 <도랑선비 청정각시> 속 황금산성인과 도랑선비가, <지장본풀이> 속 대사가 처음부터 불행의 이유를 설명했다면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는 그것을 납득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감정이 더욱 격해져서 도랑선비를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바라고 팔자를 탓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보였을 수 있다. 망묵굿과 시왕맞이에 참여하는 제의참여자 또한 그렇다. 때문에 무속신화를 길게 구송하여 그 과정에서 제의참여자가 슬픔을 쏟아낸 후에야 공수를 통해 신의 섭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택한다.

공수는 인간에게 내리는 신의 말씀으로 “그래 내가 누구냐? 걱정하지 마라.”는 식의 신의 직접 발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공수는 강신무굿의 핵심요소로 공수를 통해 굿의 목적이 달성된다. 재가마다 굿을 준비한 목적이 다르고 굿하는 목적이 드러나야 공수가 되기 때문에, 개별 사정이 모두 다른 재가집의 형편이 반영되는 공수는 동일한 내용이 없을 만큼 다양하다.[123] 망자를 위로하는 굿의 경우 공수는 주로 위로하고 달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구송되는 함경도 망묵굿의 자료를 살피면 좋겠으나, 분단상황으로 이북지역 무가현장자료가 드물기에 서울에서 진행된 진오기굿의 자료를 통해 망자를 보내는 굿에 등장하는 공수를 살펴보고자 한다.[124]

---

123) 홍태한, 「강신무굿판의 공수의 의미와 기능」, 남도민속연구 21권, 남도민속학회, 2010, 341-342쪽

124) 망묵굿에서 무당이 재가에게 공수를 내리는 장면은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다. 임석재, 위의 책,

무당(딸):(갑자기 쓰러지면서) 아이구 어머니.
재가집: (놀라서 무당을 껴안으며) 너 왔냐? 너 왔어? 어이구 내 자식아.
무당: 그래 엄마 나 왔어 왔어. (통곡하기 시작한다.)
재가집: (함께 통곡하며) 이 자식아 그래 가긴 왜 가니. 왜 가. 이 엄마 맘에 못을 박고 가냐.
무당: 내가 가고 싶어 갔겠오. 수명이 다하고 운수가 그래서 간 것이지.
재가집: 운전은 네가 왜 하냐? ○서방이 하지.
무당: 그이가 피곤하다고 해서 바꿨는데 그냥 트럭이 달려들어서(……)
재가집: 내가 생전에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너를 미워했겠느냐.
무당: 알어 알어 엄마 알어. 내가 자식 낳아 보니 알겠어. 그러는 엄마 맘은 편했겠어. 그냥 잊고 이제 편하게 살아.
재가집: 아이구 내 가슴이야. 내 가슴에 못이 박혔다.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무당: 아냐 엄마 아냐. 그래도 날 낳아주고 키워준 것이 엄마 아냐? 엄마 마음 아파하면 내가 못가. 그러니 엄마 맘을 편하게 가지고 살아.[125]

무당에게 들어온 딸은 우선 자신이 죽은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수명이 다하고 운수가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 자신을 이제 자신을 잊고 마음 편히 살라고 어머니를 위로한다. 어머니는 자신을 달래는 딸을 붙잡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며 미련과 안타까움을 풀어낸다. 이를 통해 이제껏 실감하지 못했던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진오기굿에 나타난 공수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의참여자는 공수를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껏 인정하지 못했던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수가 신의 말씀이며 동시에 인간의 말이기 때문이다. 수명이 다하고 운수가 나빠서 죽었다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무당의 섬세한 위로와 설명이다. 이처럼 공수는 신의 섭리를 전달하며 신성성을 획득하고, 인간의 말을 통해 소통성을 확보한다. 신성성만을 강조하면 제의참여자가 신의 섭리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소통성만을 강조하면 제의참여자가 공수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 신성성과

125) 1999년 3월 3일 서울시 성북구 천신당에서 있었던 진오기굿 사례이다. 홍태한, 위의 논문 355쪽에서 인용

소통성을 모두 갖추면서 공수는 참여자에게 설득력 있는 확신을 준다.[126]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주무당은 무당이 직접 신의 섭리를 전하는 공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제주무당은 공수대신 명도인 칼이나 산판, 요량 등을 던져 그 모습으로 신의 뜻을 판단하는데 이를 '산받아 분부사룀'이라고 한다.

> 우(友) 앚지고 자(左) 앚졌더니 팔천신전이 초감제로 신수퍼 사는 디, 어느 임신이 위(位) 걸멍 재(座) 걸멍, 떨어진 신전 읏이 상(床)을 받으멍 아니 받으멍 몰라옵네다. 신의아이 몸받던 제석공 본멩두로 천왕초제비 초산으로 판급(判給)흡서. [산판점하여 그 결과를 本主에게 傳達하고 靈神(亡靈)에게 원미올려 권하고 酒盞을 넘긴 후][127]

<지장본풀이>는 제주도 시왕맞이에서 구송되는 재차이다. 따라서 공수가 등장하지 않는다. 안사인본을 살펴보면 <지장본풀이>를 구송한 후 동서남북 몰려오는 군사를 쫓은 후 심방이 분부사룀을 진행하는데 신칼점하고 군병들이 인정 많이 받고 돌아선다는 말을 전한다. 점을 치면서 하는 말은 신의 말을 간접적으로 풀어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이네요."라는 식으로 신령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식임을 드러낸다.[128] 이는 신이 무당의 몸을 빌려 직접 제의현장에 현신하여 하는 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제의참여자가 지장아기에게 일체감을 느끼는 것은 제의참여자가 이제껏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한 공감이기에 신화에서 감정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다르다. 공감과 감정의 토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제주도에서 심방이라 불리는 무당이 필요한 일이다. 무당이 등장하여 신의 말을 전하고 망자가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독여줘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지장본풀이>는 지장아기가 직접 심방이 되어 굿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장에서 분석했듯이 지장아기의 굿은 무척 특이한 구조이다. 굿이 진행되

126) 홍태한, 위의 논문, 359쪽
127) 현용준, 위의 책, 66쪽
128) 홍태한, 위의 논문, 342쪽

기 위해서는 신의 부름을 청하는 신도, 신도의 부름에 응하는 신, 그 사이를 중재하는 무당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지장본풀이>에 등장하는 굿은 신도와 무당이 모두 지장아기이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도무지 스스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겪은 지장아기가 직접 무당이 되어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장아기가 직접 무당이 되어 굿을 하는 것이 지장아기의 몸에 신이 내려 직접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공수의 과정이라 할 때 <지장본풀이> 속에서 굿을 준비하고 올리는 과정이 그토록 자세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지장아기가 올리는 굿은 제의현장에서 무당의 몸을 빌려 인간에게 내리는 신의 섭리, 공수를 상징적으로 압축해놓은 것이다.

지장아기는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반복되는 죽음을 겪으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겪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인간과 신 사이에서 둘을 중재하는 매개자인 무당의 삶과 비슷하다. 지장아기가 스스로 원해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듯, 무당 또한 강신무이든 세습무이든 누구도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없다. 강신무는 거역할 수 없는 신의 선택에 의해, 세습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집안에 의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강요당한 것뿐이다. 결혼도 같은 집안끼리만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백정이나 무당 같은 천민의 신분 상승을 막는 굴레로 기능했다.[129] 무당은 이렇듯 자신이 의도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배신당하는 인생을 산 자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자기 마음만 믿고 살다가 맨몸으로 내동댕이쳐져 도저히 그 울분을 삭일 수 없어 신의 도움을 받은 자이다. 누구보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아픈 사연도 많은 사람이기에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자이다. 무당이 몸으로 신을 받아들여 신의 섭리를 전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신의 섭리는 앞뒤가 들어맞는 논리적인 이론이 아니다.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중심에 놓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려는 성향의 가진 인간에게 신의 섭리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아득히 먼 이야기로 느껴지곤 한다. 굿이란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도

129) 황루시, 위의 책, 22쪽

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 어려운 과정에 제의참여자만큼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은 무당이 함께한다. 무당의 섬세한 위로와 설명이 보태진 후에야 인간은 비로소 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있음을, 중요한 것은 불행이 발생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대처와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 캠벨 : 프로이트는 우리 삶이 오점투성이인 것은 다 부모 탓이라고 했고, 마르크스는 우리 삶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류 계급 탓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탓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카르마(業)'라고 하는 인도의 개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도움을 줄 겁니다. 이 개념 풀이에 따르면, 우리 삶은 우리가 지은 업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밖에는 탓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 모이어스 : 그러면 우연지사(偶然之事)는 어쩌고요? 술 취한 운전자가 모퉁이를 돌다가 내 차를 들이받을 경우에는 어쩌고요? 그건 우리 과실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 캠벨 :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지사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연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배경은 우연입니다. (중략)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와요. 중요한 것은 이걸 탓하거나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생기(生起)하는 삶과 대결하는 겁니다.[130]

비교신화학자 캠벨은 삶의 궁극적인 배경은 우연이니 이를 받아들이고 우연 이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4-3장에서는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에서 청정각시와 지장아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은 겪은 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신화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30)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신화의 힘』, , 이윤기 옮김, 이끌리오, 2002, 298쪽

4.4. 제의적·상징적 죽음을 통한 존재적 거듭남

굿의 마지막 단계는 제의적·상징적 죽음을 통한 거듭남의 과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으로 심리적 죽음상태 놓인 개인이 불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는 신화 속 주인공과의 공감, 일체감을 통해 감정의 표출하는 첫 번째 단계와 신과 소통이 가능한 무당을 매개로 하여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두 번째 단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 제의참여자가 단순히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융의 말하는 종교체험과도 연관된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의 결말을 보면 청정각시는 향나무에 목을 매서 자결하고 지장아기는 죽어갈 때 몸에서 악새가 나오는 것으로 나온다. 둘의 공통점은 '죽음'이다.

> "나와 같이 살려거든 집에 돌아가서 석자 세치 명주실로 오대조가 심은 노가지 향나무에 한 끝을 걸고 한 끝은 네 목에 걸고 죽어라. 죽어 저승에서라야 우리 둘이 잘 살리라." (중략)
> 낭자는 비로소 죽는 법을 깨달아 크게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르친 대로 목을 잘라 자결하였다.[131]

> 지장의 아기씨 죽어야 갈 때예 새몸에 나더고 머리로 나는 건 두통(頭痛)새 나더고 눈으로 흘그새 코으로 악심(惡心)새 입으로 헤말림 가슴에 이열새 오곰에 조작새 새몸에 가더고 요 새가 들어서 풍문에 조화를 불러나 주더고[132]

왜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는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죽어야 할까. 다른 신화 속 주인공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둘의 죽음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죽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다. 신화 속에서 청정각시는 갑작스러운 도랑선비의 죽음으로, 지장아기는 타고난 살(煞)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을 겪는다.

---

131) 손진태, 위의 책, 64쪽
132) 현용준, 위의 책, 248쪽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한다. 청정각시와 지장아기가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화가 구송되는 굿의 현장에서 제의참여자들은 청정각시와 지장아기에게 공감하게 그들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청정각시와 지장아기의 고난의 과정에 공감하여 굿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을 쏟아낸다. 그렇게 감정을 다 쏟아낸 후에 신의 섭리를 접한다. 죽은 자를 떠나보내고 마음 편히 남은 삶을 살아야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 후에 등장하는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는 제의참여자들의 슬픔을 떠안고 굿판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는다.

<도랑선비 청정각시>는 청정각시와 죽어 저승에 간 모습을 보여준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서 벗어난 청정각시는 이전과 달리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 낭자는 저승문전에 서서, “나는 청정각시이오, 바삐 도랑선비를 보게 하소.”하였다. 그때 마침 금상절 부처님이 염라왕께 편지를 보내 그것이 염라왕 문전에 떨어졌음으로 염라왕이 그것을 펴 본 즉, 그 중에 “각시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좋은 곳에 있게 하라. 각시는 이 천하에 제일 지성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었다.
> 그때 도랑선비는 저승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낭자는 그 초당문을 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는 크게 기뻐하여 처를 맞아 두 사람은 거기서 무한한 즐거움을 받았다.[133]

청정각시는 저승에 가서야 그토록 그리던 도랑선비를 만나 무한한 즐거움을 누린다. 갑작스레 곁을 떠나 저승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던 망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제의참여자 또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된다. 남은 삶을 잘 보내다가 훗날 저승에 가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망자와 만날 수 있음을, 그 곳에서 마침내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만나게 될 것임을 깨닫고 죽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된다.

---

133) 손진태, 위의 책, 65쪽

<도랑선비 청정각시>가 제의참여자에게 미래를 기약하며 남은 삶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한다면 <지장본풀이>는 제의참여자를 괴롭히던 팔자와 살(煞)이 풀렸음을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삶은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청정각시가 자결 이후 저승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등장하는 데에 비해 지장아기는 죽어가는 몸에서 악새가 나온다는 설명 이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장아기에게 다시 살(煞)이 들지 않도록 무당이 악새를 쫓는 장면만 제시된다.

> 요 새가 들어서 풍문(風雲)에 조화(造化)를 불러나 주더고 요 새를 ᄃᆞ리자 주워라 훨쭉 다 ᄃᆞ려 가는고 주어라 훨쭉[134]

<지장본풀이>에 나타나있지 않아도 살(煞)을 풀어낸 지장아기가 전과 달리 행복한 삶을 살았음은 충분히 추측가능하다. 직접 무당이 되어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살(煞)을 풀어내 몸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이다. 지장아기와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진 무당이 내림굿을 받아 신을 받아들인 후에 전에 앓던 신병을 고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지장아기의 거듭남은 종교체험을 통한 거듭남이다. 이는 <지장본풀이> 작품 내에서 한 번, <지장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현장에서 또 한 번 이중으로 이루어진다. 칼 구스타프 융은 종교체험을 집단 무의식 속 원형을 자극하는 일이라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 유교 등 특정한 교단을 말하거나 단순한 신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특정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의식의 태도를 의미한다. 융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신봉하는 종교나 종교적 교의와 관계없이 그런 요소들을 체험하고 깊은 충격을 받으며, 그 체험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135]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믿는 대상은 '신(God)'이 아니라 '신의 이미지(image of God)'이다.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개인이 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134) 현용준, 위의 책, 248쪽
135) 김성민, 「현대 사회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신학과 실천 제 48호, 한국실천신학회, 2016. 127-128쪽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신은 절대자로서 인간이 알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사람들은 신과 상대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신의 상을 그리면서 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136] 이렇게 만들어진 신의 이미지에는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이면서 잠재된 신성인 '자기(Self)'의 모습이 반영된다. 융의 이론을 정리하자면 인간이 제의현장에서 만나는 '신'은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신성이 반영된 '자기(Self)'이다. 즉 우리는 신과의 만남을 통해 존재의 거듭남을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잠들어있던 신성과의 만남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존재의 거듭남은 곧 존재의 확장이 된다.

내 안의 신성을 발현해서 존재의 거듭남과 확장을 겪고 나아가 신이 되는 것은 한국 무속신화의 기본 관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신성을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 신(神)이 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귀(鬼)가 되는 이가 있고 물(物)이 되는 이도 있다.[137] 융 또한 내면의 신성, 자기(Self)를 어떻게 발현할지, 그 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자기(Self)가 반영된 신의 이미지는 한 사람의 세계관과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올바른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면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로운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거나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여 고통 받게 된다고 말했다.[138]

그렇다면 지장아기가 놓인 상황에서 올바른 자기발현이란, 신(神)이 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지장본풀이>는 그 답으로 굿을 제시한다. 스스로의 팔자를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 죽은 이를 위해 정성껏 굿을 올리라고 말한다. 대사의 말을 따라 굿을 올리고 지장아기는 평생 자신의 괴롭혔던 살(煞)에서 벗어나게 된다. 굿이라는 해결책은 소중한 이를 잃고 슬픔의 잠긴 사람들에게로 확장된다. 지금 굿판에서 <지장본풀이>를 듣고 감정을 쏟

136) 김성민, 위의 논문, 289쪽

137) 신동흔은 한국의 무속신화들이 인간이 태생적으로 신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현하여 신이 된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주인공이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성을 발현하였는지를 전하는,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성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신화라고 해석한 바 있다. 신동흔,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관념의 단면 -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제 43권, 비교민속학회, 2010, 361쪽

138) 김성민, 위의 논문, 289쪽

아내는 이는 망자를 위해 굿을 올리고 있으니 올바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귀(鬼)나 물(物)이 되지 않고 신(神)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자기발현의 길이다. 신(神)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택한 사람은 <지장본풀이>를 듣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다. 망자를 위로하는 망묵굿을 열어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속에서 많은 눈물을 쏟아낸 사람 또한 올바른 자기발현의 길을 걷는 중이다.

우리는 흔히 소중한 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로 위로하곤 한다. 여기에는 죽은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살던, 죽어서 만나겠다 후세를 약속하던 어찌되었던 산 사람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계속해서 불행에 함몰된 채로 살 수 없으니 불행에서 벗어나라는 일종의 채찍질일 것이다. 굿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사람의 일에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법이고, 굿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위험을 당해 본 사람이 최후로 선택한 또 다른 삶의 전략인 것이다.[139] 사람들은 굿을 통해서 이전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하여 다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론적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불행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

139) 황루시, 위의 책, 279쪽

제5장 결론

불행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사건이다. 불행은 일상의 균열에서 시작되는데 일상에서 생겨난 균열을 행복이나 불행으로 결론짓는 것은 주체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 그런데 삶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살면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는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로부터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났을 때 굿을 열어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굿은 신의 섭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놓인 개인이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본고는 신화라는 개별적인 텍스트와 제의라는 상황적인 콘텍스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불행한 상황에 놓인 제의참여자의 심리적 거듭남을 이끌어 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심리적 거듭남의 과정이 굿의 연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무속신화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를 대상으로 삼아 먼저 신화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굿이라는 제의현장의 콘텍스트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함경도 망묵굿에서 불리는 <도랑선비 청정각시> 속 청정각시는 혼인날에 갑작스레 남편 도랑선비가 죽으면서 불행을 겪게 된다. 함께 보낸 시간은 단 하루였지만 혼인했다는 이유로 청정각시는 시댁에 가서 청상과부의 삶을 살게 된다. 불시에 닥쳐온 극단적 불행 앞에서 청정각시는 상황을 직면하고 저항하여 불행을 극복하고자한다. 각시는 죽은 선비를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죽음은 이미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청정각시는 신체적 고통으로 표상되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고통의 과정 끝에 그토록 바라던 죽은 선비와의 재회는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비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신화 속에서 자결과 신직 좌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정각시의 서사는 살면서 겪게 되는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불행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별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제주도 시왕맞이에서 불리는 <지장본풀이> 속 지장아기는 어렸을 때는 친정식구가, 결혼 후에는 시댁식구가 모두 죽으면서 불행을 겪는다. 지장아기를 둘러싼 죽음은 지장아기가 가진 살(煞)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 때문에 지장아기를 평생 따라다니는 태생적 불행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장아기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불행의 원인을 사주팔자로 돌려 불행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대사와 소사에게 자신의 사주팔자를 봐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태생적 불행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굿을 통해 인생에 어둠을 드리우던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신화 속에서 이는 지장아기와 함께하던 악한 기운이 악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장아기의 서사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태생적 불행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정과 사주팔자를 탓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망자를 위로하는 굿은 곧 남은 자를 위로하는 굿이다. 망자를 위로하는 굿인 망묵굿과 시왕맞이에서 불리는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가 먼저 떠난 망자가 아닌 남아서 불행 속에 고통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굿은 단순히 남은 자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데 이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또 다른 나'와 불행을 공유하며 위안을 얻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타인과의 감정소통이다. 불행,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타인과의 대화와 교감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데 굿이라는 제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제의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한다.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지장본풀이>는 주인공 청저각시와 지장아기의 고립이 두드러지는 작품인데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 역시 슬픔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에 혼자 남겨져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던 참여자는 굿이라는 제의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위안을 얻는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인공을 매개로 하여 감정을 토로하고 표출하는 과정이다. 무속신화는 신화 속 인물과 제의참여자의 동질감과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다. 청정각시와 지장아기는 제의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극단적 불행으로 인한 슬픔에 빠진 '나보다 더 슬픈 나'로서 기능한다. 제의참여자는 청정각시의 계속되는 울음과 지장아기의 신세한탄에 공감하고 일체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인 양 감정을 쏟아낸다.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난 후에 무당의 몸을 빌려 굿판에 등장한 망자를 마주한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망자와 만나면서 마음속에 맺힌 감정을 풀어낸다.

세 번째 단계는 불행에 얽힌 신적 섭리를 납득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굿이라는 제의를 움직이는 신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무당이라는 매개자가 큰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무당은 공수라는 방법을 통해 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데 공수를 들으면서 제의참여자는 혼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던 불행을 받아들이게 된다. 신의 섭리는 앞뒤가 들어맞는 논리적인 이론이 아니기에 인간은 이를 받아들이려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무당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의 섭리에 세세한 설명이 더한다. 이를 통해 제의참여자는 중요한 것은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에 대처하고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제의적·상징적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한국 무속과 융의 종교체험의 접점이 생긴다. 융은 종교체험을 통해 자기 안에 잠재된 신과 같은 초월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 안의 신성을 발현해서 존재의 거듭남과 확장을 겪고 나아가 신이 된다는 한국무속신화의 기본 관념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제의참여자는 청정각시의 상징적 죽음과 지장아기의 제의적 죽음과 함께 이전의 나를 내려놓는다. 신화 속에서 상징적 죽음을 겪고 신으로 좌정한 청정각시와 제의적 죽음을 겪고 자신 안의 불행을 풀어낸 지장아기와 같이, 제의참여자 또한 슬픔에 빠져있던 이전의 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인간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을 담고 있는 신화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신화와 신화가 연행되는 굿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진 현대인이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점검해 보았다. 본고에서 다룬 두 작품은 모두 불행이 죽음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모든 불행이 죽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에 다양한 불행의 모습을 살피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상관없는 고대의 유물로 여겨지는 신화를 현대사회와 연결시켜 그 의미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욕망과 이데올로기에서 잠시 벗어나 신화가 담고 있는 삶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신화가 전하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위기상황 극복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태곤, 『함경도 망묵굿』, 집문당, 1978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1997

손진태 편저 ; 김종군외 주해, 『조선신가유편 : 이북 땅의 무가.1』, 박이정, 2012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주)일조각, 2006

전경욱,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황루시, 『우리 무당이야기』, 도서출판 풀빛, 2000

C.레비-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주)도서출판 한길사, 1999

C.G.Jung 저,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역,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풀판사, 2008

조셉 캠벨, 이진구 역,『신의 가면1 : 원시 신화』, 까치글방, 2003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강영안, 「일상의 삶 : 행복과 불행」, 철학논집 제 46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6

고은영,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새도림 말명 삽입의 의미」, 탐라문화 53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고은영, 「사록의 의미-<삼공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9권, 영주어문학회, 2018

김선현,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경계 공간의 서사적 함의」, 구비문학연구 44권, 한국구비문학회, 2017

김성민, 「심리학과 종교 : C. G. 융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014

김성민, 「현대 사회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신학과

실천 제 48호, 한국실천신학회, 2016
김수중, 「고난 극복 신화의 전개 양상 고찰」, 한국언어문학회 36권, 한국언어문학, 1996
김중섭, 「조선 전기 백정 정책과 사회적 지위 - 통합, 배제, 통재의 삼중주」, 조선시대사학보 제 69집, 조선시대사학회, 2014
김지영·김기범, 「한국인의 자기신세 조망양식으로서 팔자(八字)의 이야기분석과 통제신념과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 11권, 한국심리학회, 2005
김헌선,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 <도랑선배·청정각시노래>를 중심으로」, 구비문학회 Vol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김헌선,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연구 - 특히 『시왕맞이』의 <지장본풀이>를 예증삼아」, 『한국무속학』 제10집, 한국무속학회, 2005
김헌선, 지연화, 「굿의 치유 과정 연구」, 한국무속학 Vol.32, 한국무속학회, 2016
김효경, 「살(煞)과 살풀이의 존재양상 -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9집, 한국무속학, 2014
서영숙, 「서사무가 <도랑선비 청정각시>와 혼사장애형 민요 비교」, 한국시가문화연구 8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01
신동흔,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관념의 단면 -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제 43권, 비교민속학회, 2010
신동흔, 「서사무가 속의 울음에 깃든 공감과 치유의 미학 - 특히 <도랑선비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 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신종한, 「근대 신분제도의 변동과 일상생활의 재편 - 형평운동과 백정들의 일상」, 동양학 47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0
윤준섭, 「<도랑선비·청정각시>에 나타난 청정각시 죽음의 의미 - 희생제의의 전통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53권, 한국고전문학회, 2018
이상익, 「동서사상에 있어서의 인간과 신 - 인간의 자기이해와 신에 대한

관념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국학연구 제3집, 국학연구소, 1990
이수림, 「외상 유형이 외상후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제19권, 한국심리학회, 2012
이수자,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미」, 이화어문논집 10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88
이수자, 「임석재의 <관북지방무가>에 나타난 무속신화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27권, 한국구비문학회, 2008
이용범, 「굿,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의 의례」, 한국무속학 제 32집, 한국무속학회, 2016
이은희,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부부서사의 특성과 문학치료적 가치 - 부부서사의 '지속'을 위한 청정각시의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9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묵굿』, 열화당, 1985
조정현, 「축제적 상생과 치유의 '판문화'로서 굿판의 성격과 기능」, 한국무속학 제 28집, 한국무속학회, 2014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vol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연구 : '지장'과 '새'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문속학 제 31집, 한국민속학회, 2015
정제호,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와 제의적 기능」, 고전과 해석 23권,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7
조현설,「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사연구 18권,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한양하,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30권, 한국구비문학회, 2010
한진오,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와 연행방식 고찰」, 탐라문화

3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홍태한, 「강신무굿판의 공수의 의미와 기능」, 남도민속연구 21권, 남도민속학회, 2010

고예나,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 정서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희현,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한 가족원의 적응과정」,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조정소리, 「융 심리학의 개성화와 기독교 종교체험과의 관련성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 신학과 목회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조희옥, 「학습된 무기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고립, 공감을 매개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xt and Meaning of unfortunate incident in the shaman myth

Focused on the <Dorangseonbi and chungjeonggaksi> and <Jijangbonpuri>

Kang, Sae M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Unfortune is an incident that we will encounter when we live in the world. Why do humans suffer from misery and how should they overcome it? This i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human existence and life. The way to overcome misfortune exists in different way for different group. This is because the group's private structure for a particular incident is different. In this article, I tried to suggest a way to overcome unfortunate by giving comfort to people who spend time like death in unfortune situation by looking at the reason structure of Korean people through the shaman myth with Korean thinking structure.

In this work, I have selected <Dorangseonbi and chungjeonggaksi> and <Jijangbonpuri> to examine the context of the unfortunate in its work and study its meaning. It's an extreme misfortune that has happened unexpectedly in the midst of the trance in <Dorangseonbi and chungjeonggaksi>, and it's a method to find the way out of unfortunate by facing the unfortunate and the resistance against the unfortunate incident. And the misfortunes of the chungjeonggaksi were

typical of those who experienced sudden bereavement in the same context. In the same way, I analyzed the misfortune in the <Jijangbonpuri> as a natural misfortune and analyzed that the way she responded to it was to admit her native misfortunes and escape from them after being frustrated and avoided. And I saw that the tragic nature of the Jijang is typical because it has the same context as the misfortunes of those who cannot escape them, no matter how hard they try.

The Korean shamanistic myth works by forming a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the shamanistic myth described in the proposal and the extern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proposal is request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offer participants are placed, the appropriate god is called, and the participants naturally feel a sense of unity with the gods as they release. Based on individual works called Myth participants will share a common sense with God in the same situation, and will experience a new me while the "God" is being offered.

I divided the process of regeneration into four stages. Participants who are deeply saddened by an unfortunate incident share their unfortunate and receive primary consolation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s who are in the same situation as themselves. This consolation takes place at a ceremony place. Next, they sympathize with the main character in the shaman myth and become one with their narrative, and go through the process of expressing emotion and expressing with the main character crying and laughing. After releasing the emotions that have been built up in their mind,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providence of the gods involved in their misfortunes. In this process, the shaman, the priestess, mediates between God and Human, and provides a detailed explanation of God 's providence which can be somewhat difficult to accept from human'

s perspective. After going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participants will be reborn as a new one from the old one that was in a state of death. The process of regeneration is symbolic death of the main character in the myth, and the death of the ritual in the field of the Gut.

Analysis psychologist Carl Gustav Jung believes that humans can experience certain kinds of experiences and experience changes in consciousness when they meet a divine being. At this time, the divine presence that Jung speaks is the divine power hidden inside the human being. Though hidden deep inside, it is not usually visible, but after suffering severe pain, one can face hidden inside and become a new self based on its power. The process of the religious experience, as Jung says, is in the same vein as the basic idea of Korean shamanistic mythology, which expresses the divine nature hidden inside of Human, thus experiencing the repetition and expansion of existence and further becoming a God.

Through the process of regeneration and healing through the myths and guts presented in this study, we expect to be able to present a way to escape from misery and sadness to those who are deeply saddened by unfortunate incident. This will help little to awake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myth to the modern society in which myth has disappeared.

Keyword : Shaman myth, Unfortunate incident. Regeneration, Gut, <Dorangseonbi and chungjeonggaksi>,<Jijangbonpuri>